

현 경 실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음악에 따른 동작능력에 관한 실태조사

- 만 5, 6, 7세를 중심으로 -

2005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함 주 현

음악에 따른 동작능력에 관한 실태조사

- 만 5, 6, 7세를 중심으로 -

현 경 실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4년 12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함 주 현

인 준 서

함주현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음악교육에서 동작활동이 효과적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아직까지 동작활동을 학교의 수업시간에 적용시키는 것에 대한 연구는 많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아동들의 나이에 따라 음악의 일정 박에 맞추어 하는 여러 가지 동작 능력을 조사하여 아동기에 적절한 동작을 이용한 음악수업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음악 수업에 많이 쓰이는 동작 중에서 이동 동작인 걷기, 달리기, 제자리높이뛰기, 앵금질, 스키핑과 비이동 동작인 무릎치기, 손뼉치기, 어깨치기, 어깨-손뼉치기, 어깨-손뼉-무릎-손뼉치기를 음악의 일정 박에 맞추어 얼마나 수행하는지 알아보고, 나이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아동의 나이를 고려한 음악에 따른 동작활동 측정도구를 제작하였다. 이 제작된 측정도구로 서울과 서울 근교에 위치한 어린이집 및 음악학원 3곳과 초등학교 3곳을 선정하여 나이별로 만 5세(취학 전), 6세(초등학교 1학년), 7세(초등학교 2학년) 아동 총 135명의 아동을 연령별로 45명씩 나누어 음악에 따른 동작활동을 측정하였다.

이것은 소집단 평가 방식으로 동작활동 전 과정을 VTR 촬영한 뒤 측정되었다. 실시된 동작들은 본 연구자가 직접 고안한 평가기준에 의해 연구자 이외에 다른 2인의 다른 평가자가 함께 동작의 수행여부를 채점하였다. 채점된 3인의 평가자 점수는 크론바흐 알파계수(Cronbach's Alpha)를 사용하여 평가자 신뢰도를 측정하고, 나이가 동작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카이-스퀘어 검정(Chi-square)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측정된 10가지 동작 중에서 걷기 동작이 가장 쉬운 동작이었으며, 스키핑 동작이 가장 어려운 동작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손뱍치기를 제외한 모든 동작은 나이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특히 이동 동작의 걷기와 제자리높이뛰기, 비이동 동작의 어깨치기, 어깨치기-손뱍치기 동작은 6, 7세는 서로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5세와 6세 사이에는 6, 7세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보았을 때 이와 같은 동작들은 5세에서 6세 사이에 급격히 발달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셋째, 이동 동작의 앵금질과 스키핑의 경우 나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실험에 참여했던 모든 연령들이 다른 동작에 비해 수행하는 정도가 낮은 편이었다. 이러한 결과로 보았을 때 이와 같은 동작들은 다른 동작에 비해 어려운 동작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넷째, 비이동 동작의 어깨치기-손뱍치기-무릎치기-손뱍치기 동작과 같이 네 가지 이상의 동작이 결합된 형태의 동작은 다른 동작에 비해 수행하는 정도가 현저히 낮은 편이었다. 이와 같은 동작은 5세, 6세, 7세의 모든 아동이 음악에 맞추어 재빨리 다른 동작으로 바꾸어야 하는 데는 무리가 따름을 추정할 수 있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5
3. 연구문제	6
4. 연구의 제한점	6
II. 이론적 배경	8
1. 동작교육(Movement Education)의 개념 및 목적	8
2. 기초적 동작(Fundamental Movement)	10
3. 라만의 동작교육	18
4. 달크로즈의 신체표현	24
5. 연령적 시기에 따른 발달 특성과 동작	26
6. 선행연구 고찰	28
III. 연구방법 및 절차	31
1. 연구대상	31
2. 연구도구	32
3. 연구절차	36
4. 연구 분석 방법	39
IV. 음악에 따른 동작활동 측정 프로그램 시안	40
1. 이동 동작문항 (1번~5번)	40
2. 비이동 동작문항 (6번~10번)	43

V. 연구결과 및 해석	46
1. 평가자 신뢰도	46
2. 음악의 일정 박에 맞춘 각 동작의 난이도	47
3. 나이별 음악의 일정 박에 맞춘 각 동작의 성취율	48
VI. 요약·결론 및 제언	57
1. 요약	57
2. 결론	60
3. 제언	61

참고문헌

ABSTRACT(영문초록)

부 록

- 표 목 차 -

〈표 1〉 기초적인 동작의 유형	18
〈표 2〉 라반의 동작 기본요소	22
〈표 3〉 라반의 동작개념 발달 단계를 기초로 한 동작의 기본요소에 대한 주제와 내용	23
〈표 4〉 나이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인원 수	32
〈표 5〉 이동 동작과 비이동 동작으로 나뉜 평가영역 문항	35
〈표 6〉 동작문항의 평가도구	38
〈표 7〉 각 나이에서의 평가자 신뢰도	46
〈표 8〉 각 동작에서의 평가자 신뢰도	46
〈표 9〉 음악의 일정 박에 맞춘 이동 동작의 성취율	47
〈표 10〉 음악의 일정 박에 맞춘 비이동 동작의 성취율	48
〈표 11〉 나이별 음악의 일정 박에 맞춘 걷기의 성취율	49
〈표 12〉 나이별 음악의 일정 박에 맞춘 달리기의 성취율	50
〈표 13〉 나이별 음악의 일정 박에 맞춘 제자리높이뛰기의 성취율	50
〈표 14〉 나이별 음악의 일정 박에 맞춘 앵금질의 성취율	51
〈표 15〉 나이별 음악의 일정 박에 맞춘 스키핑의 성취율	52
〈표 16〉 나이별 음악의 일정 박에 맞춘 무릎치기의 성취율	53
〈표 17〉 나이별 음악의 일정 박에 맞춘 손뼉치기의 성취율	53
〈표 18〉 나이별 음악의 일정 박에 맞춘 어깨치기의 성취율	54
〈표 19〉 나이별 음악의 일정 박에 맞춘 어깨치기-손뼉치기의 성취율	55
〈표 20〉 나이별 음악의 일정 박에 맞춘 어깨치기-손뼉치기-무릎치기 -손뼉치기의 성취율	56

- 그림 목 차 -

<그림 1> 움직임의 기본 개념과 학습활동 내용과의 관계	11
<그림 2> 걷기	12
<그림 3> 달리기	13
<그림 4> 뛰기	13
<그림 5> 앵금질	14
<그림 6> 스키핑	14
<그림 7> 무릎치기	15
<그림 8> 손뼉치기	16
<그림 9> 어깨치기	16
<그림 10> 어깨치기-손뼉치기	17
<그림 11> 어깨치기-손뼉치기-무릎치기-손뼉치기	17
<그림 12> 동작의 기본요소	22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음악과 동작이 상호 관련된다는 견해는 일찍이 음악교육자인 자크 달크로즈(Jaques-Dalcroze)에 의해서 주장되었다. 달크로즈는 음악교육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 그는 ‘생활과 가장 밀접한 음악의 요소는 바로 리드믹 동작(Rhythmic Movement)이다’라고 하였다.¹⁾ 즉, 리듬과 신체의 움직임간의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몸의 율동을 통해 일정 박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둔 것이다. 그는 음악을 이해하고 음악표현의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귀나 입으로 소리 내는 방법을 훈련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인간의 몸 전체를 훈련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²⁾ 이와 같이 달크로즈의 사상은 모두 움직임을 음악학습과 창작의 통합적인 부분으로 보고 있다.³⁾

인간은 살면서 움직이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아동들에게 있어서 동작은 삶은 근원으로, 아동은 동작을 통해서 삶을 경험한다. 한글 우리말 큰사전⁴⁾을 보면 ‘동작’을 ‘몸이나 손발의 움직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들에게 있어서 동작은 단순히 움직인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힐데브란트(Hildebrand)는 아동의 동작에 대한 견해로 아동이 걷고, 달리고,

1) Pica, R. *Experiences in Movement-with Music, Activities and Theory*, (Albany,N.Y.:Delmar Publishers Inc. ,1995), p.13

2) 이홍수,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90), p.310

3) 이기숙, 『아동교육과정』 (서울: 교문사, 1992) p.337

4) 한글학회, 『한글 우리말 큰사전』 (서울: 한글과 컴퓨터, 1995) p.35

뛰고, 흔들고, 구르기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자신의 표현이면서 동작의 시작이라 하였다.⁵⁾ 더욱이 아동은 여러 형태의 동작을 통해 자신감을 얻게 되어 어떤 동작 활동에 참여할지라도 스스로 만족감과 기쁨을 얻게 된다.⁶⁾ 아동은 끊임없이 탐색하고 움직이고 싶어하고, 자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싶어 하는데 이는 아동기의 두드러진 발달적 특성인 것이다.⁷⁾ 즉, 어떠한 동작이든지 계속 반복하고 시도함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발견하고 성취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또한 어린 아동일수록 언어로 의사를 충분히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동작은 의사소통이 아닌 수단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동작은 아동발달에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신체를 통해서 움직임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줄리스(Jullis)는 동작교육에 대한 견해로 아동기는 운동 발달을 위한 이상적인 시기이고, 생활습관 태도를 형성하기 시작하는 때이며, 두뇌의 발달이 평생 중 가장 현저한 시기이고, 자아개념이 형성되는 시기이므로, 동작교육은 아동 교육의 기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교수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⁸⁾ 그러므로 동작 교육의 중요성은 아동이 신체의 움직임에 애정을 갖도록 만들어주어, 아동이 움직임을 통해 성공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것에 있다.

이와 같은 아동의 움직임에 대해 현경실은 신체의 움직임은 음악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노래는 물론 말도 못하는 돌이 채 안된 아기들도 음악을 들으면 몸을 움직임으로서 음악에 반응하는 것은 그만큼 음악에 대해

5) 배인자, 한규령, 『아동을 위한 동작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양서원, 1996), p.17, Hildebrand, 1981에서 재인용

6) Margolin, E. *Youngchildren*,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Inc., 1976), p.15.

7) 김은심, 『아동동작교육』 (서울: 정민사, 1997), p.11

8) 상계서, p.12, Jullis, 1978에서 재인용

신체적으로 반응하는 일은 노래를 하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것보다도 훨씬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활동이라고 설명하였다.⁹⁾ 특히, 아동은 가만히 앉아서 음악을 들을 수 없으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몸을 움직이게 되는데, 이러한 움직임은 음악에 대한 느낌을 더욱 분명하게 해 준다. 또한 아동은 그네나 시소를 타면서 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하며,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즐거워하고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기도 한다.¹⁰⁾ 이것은 리드믹한 동작을 하면서 음악에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한 어린 아이에게 음악을 가르치려고 할 경우 우리는 먼저 어떤 것을 해야 할 것인가? 오선보를 그려놓고 계이름과 박자부터 가르쳐야 하는지 피아노 앞에서 반주에 맞추어 한 소절씩 노래를 가르쳐야 하는지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한 어린이에게 빠른 음악을 들려주었을 경우 음악에 맞추어 발끝을 까딱거리고, 느린 음악을 들려주었을 경우 느린 박에 맞추어 천천히 박수를 친다면 이 아이는 다양한 수준에서 음악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아이는 음악을 듣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신체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다양한 방법으로 음악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음악을 들으면서 얻은 그 감각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모든 아이들에게 음악을 완전히 표현하게 하려면 듣고, 노래하고, 창작하고, 움직이는 기회를 가지면서 음악을 표현해야 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실제적으로 우리의 대부분의 교육현장에서는 음악을 표현하는데 있어서의 중요한 방법으로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다루는 능력만을 다루고 있다. 이럴 경우 음악적인 재능을 소유하고 있다 해도 다만 두 가지 면에서 즉, 노래 부르고와 악기 연주에서만 표출했을 뿐 음악적 표현

9) 현경실, “신체표현을 위한 음악놀이 개발과 수업에의 적용방안”, 『음악과 민족』 제26호, 2003, p.470

10) 이기숙, 전계서, p.335

의 모든 면을 나타내 보인 것으로 볼 수 없다.

음악을 하는 것에 있어서 어린 시절은 놓칠 수 없는 인생의 단 한번뿐인 중요한 시기이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어린시절에 연주법 등의 기교적인 부분에만 치중하여 가르쳤을 경우 음악을 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한 가지를 빠뜨리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아동이 어린 시절에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음악을 접하는 것이 세상과 의사소통 하는 동기를 제공해 준다는 점¹¹⁾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음악활동은 어린 아동에게 있어 그들이 행하는 동작 활동과 엄격하게 구분할 수 없기 때문¹²⁾이다. 특히 음악을 표현하는 데에 있어 악기연주는 연습을 통한 습득이 아니면 표현하기 어렵지만, 몸으로 표현하거나 노래를 배우는 것은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 또한 신체를 통해서도 연주·창작·감상·이해 등 여러 가지 분야를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아동에게 동작 활동을 통해 쉽게 음악으로의 접근이 가능하다. 따라서 음악학습에서 동작활동이 학습에 미치는 영향은 크며 오늘날 음악교육에서 동작활동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이러한 시기의 아동들에게 동작활동을 통해 음악을 표현하는 실제 경험을 통해서 아동 스스로 음악능력이 발달하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아동으로 하여금 동작활동을 통해 탐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다른 아동과 함께 공유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동작활동이 음악교육에 필요한 이유는 신체의 움직임은 가장 강력한 인간의 감정 표현과 전달의 수단이기 때문이다.¹³⁾ 또한 인간은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을

11) 김은심, 전계서, p. 63

12) Pica, op. cit., p.12

13) 현경실, 전계서, p.470, G. Nash, *Creative Approaches to Child Development with Music, Language, and Movement*,(Sherman Oaks : Alfred Publishing Co, Inc, 1974), p.80에서 재인용

어떤 방법으로든지 표현하고자 하는 강한 본능이 있다. 따라서 아동기의 특성이라 할 수 있는 풍부한 모방성과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 왕성한 활동력, 그리고 예민한 음악능력을 동작 활동으로 신장시키면서 정서를 풍부하게 하는 것은 이 시기의 교육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지도 분야라고 할 수 있다.¹⁴⁾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유아교육계와 체육교육계에서 아동기의 동작 활동 교육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종합적인 연구가 부족할 뿐 아니라 아직 동작 활동에 대한 개념이 아동기에 적합하도록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 더욱이 음악교육계에 있어서는 동작활동이 음악을 하는 데에 효과적이라는 것만을 인식하고 있을 뿐, 현재 우리나라 여건상 교육현장에서 동작활동을 적용한 음악수업은 찾아보기 힘들다.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동기의 음악수업은 교육과정이 바뀔 때마다 교과서의 내용만 충실해질 뿐, 실제 교실 수업에 있어서 기존의 전통적인 음악수업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그러므로 신체를 이용한 동작활동은 아동기의 음악수업에 반드시 필요하며, 음악수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동작활동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아동들의 나이에 따라 음악의 일정 박에 맞추어 여러 가지 동작능력을 조사하여 아동기에 적절한 동작을 이용한 음악수업을 하는데 도움

14) 권미란, “음악감상 활동에서 신체표현이 아동의 창의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2000), p.4, 정세문, 기청, 『아동의 음악교육』, (서울: 창지사, 1984)에서 재인용

을 주는 것이 목적이다.

3. 연구 문제

본 연구는 문항을 이동 동작문항과 비(非)이동 동작문항으로 나누고, 나이에 따라 음악의 일정 박에 맞추어 얼마나 동작을 수행하는지 알아보고 서로 간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음악의 일정 박에 맞춘 각 동작의 난이도는 어떠한가?
- 2) 음악의 일정 박에 맞추어 이동 동작인 걷기, 달리기, 제자리높이뛰기, 앵금질, 스키핑을 얼마나 수행하며, 나이별로 차이가 있는가?
- 3) 음악의 일정 박에 맞추어 비이동 동작인 무릎치기, 손뼉치기, 어깨치기, 어깨치기-손뼉치기, 어깨치기-손뼉치기-무릎치기-손뼉치기를 얼마나 수행하며, 나이별로 차이가 있는가?

4. 연구의 제한점

- 1) 제한된 수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이 연구결과가 모든 어린이에게 적용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 2) 본 연구는 나이별로 서울시에 소재한 3곳만의 교육시설을 선정하였다.
- 3) 본 연구의 실험에 있어 피험자인 아동들에게 모두 같은 동작활동을 전

개하였으나, 측정하는 교육기관마다 측정 장소, 날짜, 시간 등에 차이가 있었으므로, 모든 피험자에게 똑같은 수업의 형태로 진행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다.

- 4) 본 연구는 각 연령별 아동들에게 음악에 따른 동작을 제시하여 그 반응을 조사하는 것에 국한시켰다.
- 5) 본 연구에 사용된 10가지 동작은 음악 수업에 많이 쓰이는 동작만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음악을 교육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어린 시절에 음악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여, 현재까지 아동 음악 교육에 대한 이론들과 그에 대한 여러 교수 방법이 나오고 있다. 이론적 배경에서는 이 연구의 목적인 음악수업에서의 동작활동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음악과 관련된 동작활동에 관한 이론들을 정리하였다.

1. 동작교육(Movement Education)의 개념 및 목적

앞서 서론에서 동작을 이용한 음악활동은 아동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교육 영역임을 확인하였다. 동작교육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개념 및 목적을 밝혀보면 다음과 같다.

1) 동작교육의 개념

동작교육은 1980년대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동작 활동, 또는 동작 교육으로 소개되었다. 동작교육의 또 다른 명칭으로 ‘율동·유희·무용’, ‘유아 무용교육’, ‘신체표현활동’, ‘움직임 교육’, ‘음률활동’ 및 ‘창의적 표현활동’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데, 이러한 명칭은 창의적인 신체 표현만을 강조하는 무용지향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¹⁵⁾

위의 용어들은 대개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는 표현적인 움직임(Expressive Movement)의 의미와 신체의 운동기술과 관련된 기능적인 움직임(Functional Movement)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¹⁶⁾ 특히 표현적 움직임의 의미는 라반(Laban)의 동작이론에 대한 업적 이후 기능적인 움직임보다 더 강조되어 왔으나, 오늘날에는 표현적·기능적 의미를 모두 가치를 두고 있다.¹⁷⁾ 아동을 위한 동작교육은 동작의 기본 원리와 요소를 배우도록 하는 기본 동작교육과 동작을 통하여 경험의 폭을 넓히며 학습을 위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동작교육의 목적

앞서 설명한 여러 학자들의 동작교육의 개념을 기초로 동작 교육의 목적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¹⁸⁾

첫째, 동작교육은 아동들의 삶을 반영한다. 아동들은 동작을 통해 그들 삶을 경험하고, 움직이는 모든 것 자체에 삶의 의미를 부여한다. 이외에 생존에 필요한 감각기관을 단련한다.

둘째, 동작교육은 아동들의 자아의식 발달을 돕는다. 아동들은 다양한 동작기술 성취에 주의를 기울이므로 자기 자신에 대한 개념을 향상시킨다.

셋째, 동작교육은 아동들의 자아의식 발달을 돕는다. 아동들은 공

15) 오연주 외, 『유아 동작 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창지사, 2000). p.12

16) 배인자, 한규령, 전개서, p.33

17) Pica, op. cit., p.6

18) 김은심, 전개서, pp.13~17

간에서 자연스럽게 효과적으로 움직이는 방법을 획득한다. 이것은 시간, 공간과 방향개념의 발달에도 필요하며 기본 동작 능력발달의 기초를 이룬다.

넷째, 동작교육은 아동들에게 자유를 허용한다. 아동들은 동작을 통해 신체와 공간의 제한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 신체표현 활동을 통해 자신을 확장시키는 자유를 경험한다.

다섯째, 동작교육은 아동들의 접촉과 의사소통 기술을 발달시킨다. 동작은 아동들의 본능적인 의사표현 수단의 역할을 해 왔다. 움직인다는 것은 인간의 특성으로 동작을 통해 자신의 느낌, 경험, 생각 등을 표현한다.

여섯째, 동작교육은 아동들에게 단순한 즐거움과 감각적 기쁨만을 제공하지 않는다. 동작을 통해 신체적, 언어적 정서·사회적, 인지적 발달을 통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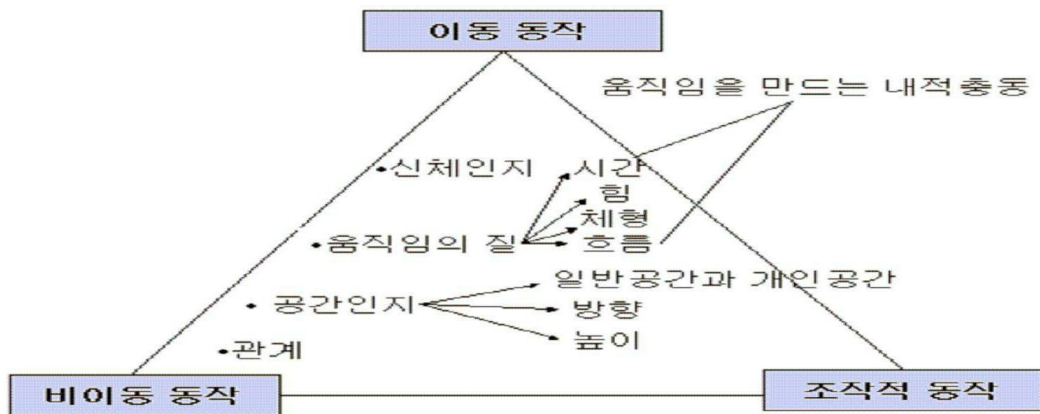
2. 기초적 동작¹⁹⁾

아동기에는 기초적인 동작기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경험을 해야 한다. 기초적인 동작 단계는 2세 이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까지를 일컫는다.²⁰⁾ 기초적인 동작기술은 유아기 이후에 보다 전문화된 운동기술을 갖게 되는 기저가 된다. 그러므로 아동기에 기초적인 동작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기초적 동작 유형들에는 이동, 비이동, 조작 기술의 세

19) 배인자, 한규령, 전개서 pp.74~100

20) 상계서, p.74, Gallahue, 1982에서 재인용

범주의 동작으로 구성된다. 다음의 <그림 1>는 기본운동을 이동 동작, 비이동 동작, 조작 동작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동운동은 한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서 행해지는 운동이고, 비이동 동작은 이동하지 않고 고정된 장소에서 행해지는 동작을 말한다. 그리고 조작운동은 기구를 가지고 행해지는 운동으로써 이 세 가지의 기본 동작은 라반이 제시한 4가지 요소인 신체, 노력, 공간, 관계요소의 움직임 개념 틀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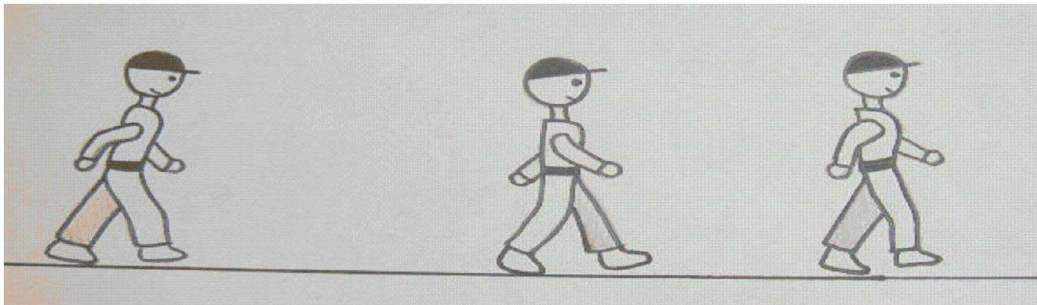
<그림 1> 움직임의 기본 개념과 학습활동 내용과의 관계

1) 이동 동작(Locomotor Movement)

이동 동작은 전이 동작이라고도 하며, 신체를 한곳에서 다른 곳으로 장소로 옮기면서 움직이는 기술이다. 일반적으로 아동들에게 이동 동작기술은 저절로 획득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참여하여 해보지 않고는 성숙적인 발달 수준에 이르기 어렵다. 따라서 아동기에는 다양한 이동 동작기술을 발휘하는 경험을 가져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에 사용되었던 동작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① 걷기(Walking)

걷기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인 리듬감의 표현으로 일상생활에서 리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예로 사람이 걸을 경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일정하게 걷는다. 이 동작은 발끝(Toe)과 뒤꿈치(Heel)에 무게를 옮김으로써, 공간속으로 자신의 신체를 옮기는 동작이다. 대개 1세경부터 걷게 되지만 불안정한 자세를 보인다. 즉, 균형을 잡기 위해 팔을 들어올리며, 발바닥 전체를 바닥에 닿게 하고 걷는다. 점점 성숙해지면서 뒤꿈치를 바닥에 닿게 하면서 걷고, 걸을 때 앞발의 무릎이 약간 굽어지며, 팔도 약간 굽히며 다리와 반대로 자연스럽게 흔들며 걷게 된다. 걷기 동작은 머리를 똑바로 들고 시선은 눈높이로 앞을 주시하고 발이 일직선이 되어 앞을 향해 내딛고 팔은 자연스럽게 움직이며 걷는 바른 자세가 늘 지도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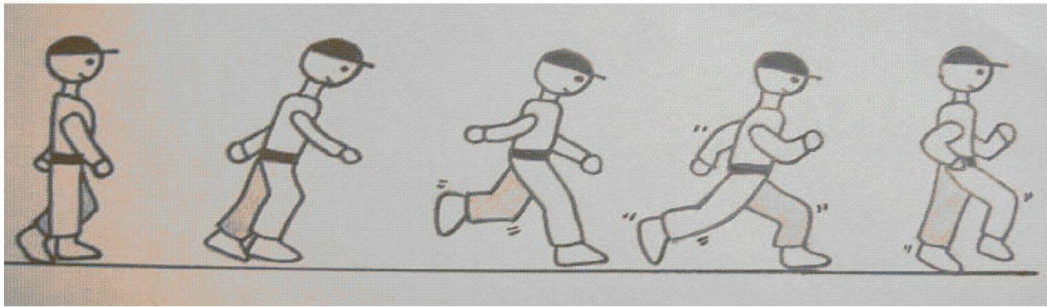


<그림 2> 걷기

② 달리기(Running)

달리기는 속도는 걷기보다 빠르지만 걷기와 마찬가지로 균형을 잡으며 일정 박에 맞추어 걷는다. 이 동작은 몸을 순간적으로 공중에 뜨게 하며 몸의 무게를 한 발에서 다른 발로 옮기는 동작이며, 이때 신체는 약간 앞으로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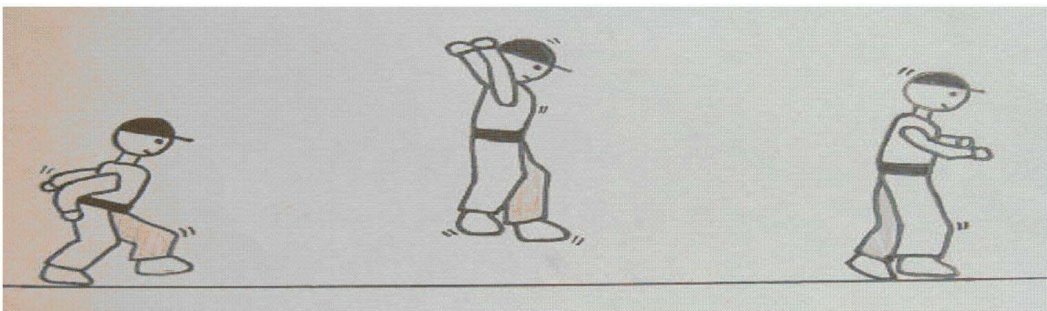
사진 자세로 팔을 약간 굽혀서 반대편 무릎 가까이 흔들게 된다. 씽클레이어(Sinclair)에 의하면, 달리기는 심장, 폐의 기능과 근육 운동이 필요한 활동 중의 하나라고 보고 있다. 또한 아동이 신체 부분을 대칭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신경체제를 요구한다.



<그림 3> 달리기

③ 제자리높이뛰기(Jump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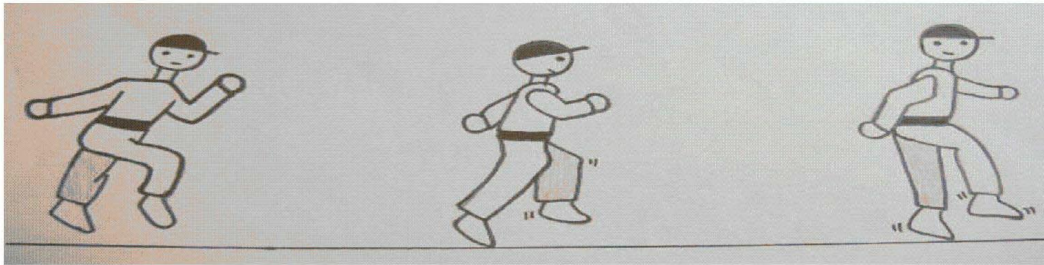
제자리높이뛰기는 제자리에서 두 발을 이용해서 날아오르듯 몸을 위로 올려 뛰는 것이다. 땅 위에서 뛰어오를 때 바닥과 마지막으로 닿는 부분이 발끝이며, 다시 바닥에 내려올 때도 발끝이 먼저 닿고 그 다음 발바닥 부분, 발뒤꿈치가 닿게 된다. 무릎은 바닥 위에서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굽혀야 한다. 모든 동작에 있어서 호흡과 박자가 정확히 일치해야 하지만, 특히 높이 뛰는 동작에 있어서는 호흡과 박자를 놓치면 높이뛰기가 어렵다.



<그림 4> 뛰기

④ 앵금질(Hopp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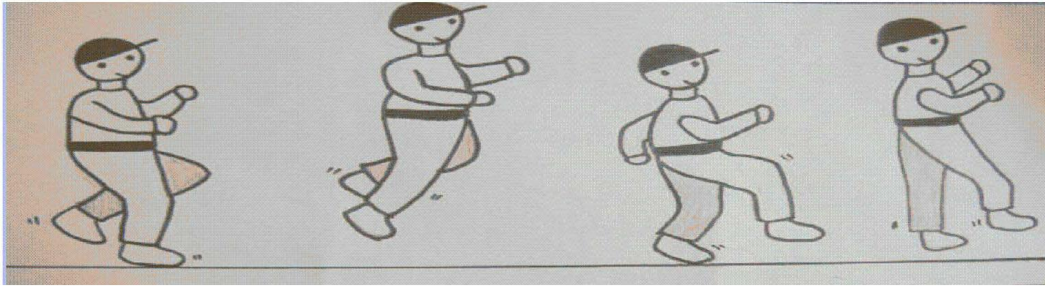
이 동작은 한 발에 몸의 무게를 주고 바닥에서 밀어올리고 나서 같은 발로 되돌아 다시 바닥에 닿는 것이다. 아동들은 4세 경에 앵금질을 할 수 있으며, 앵금질 할 때에는 한쪽 다리를 들어올린 채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그림 5> 앵금질

⑤ 스키핑(Skipping)

스키핑은 한 발짝 앞으로 걷고(Step) 가볍고 빠르게 뛰는(Hop) 동작이 함께 일어나는 움직임으로써 동작의 짧은 박자에 맞춰진다. 뛰는 동작보다는 걷는 동작에 더 강조를 두며, 한 발이 순간적으로 바닥위로 올라가며 가볍게 미끄러지는 듯한 움직임으로 나타난다. 그러면서 다른 발로 바꾸어 같은 동작을 반복한다. 스키핑은 다른 동작과 비교 하였을 때 리듬감이 강조한 동작이다. 이 동작에 있어 박자를 놓치면 걸음의 균형을 잃게 되어 동작의 유지하기 어렵다. 대부분의 아동들이 한쪽 발로만 계속 스키핑하는 것은 정상적인 발달 단계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교사의 시범과 모방을 통해 두 발을 교대할 수 있는 앵금질 동작이 익혀질 기회를 충분히 가져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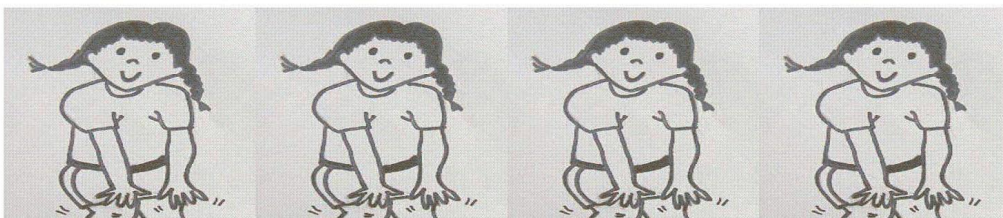
<그림 6> 스킵핑

2) 비이동 동작(Nonlocomotor Movement)

비이동 동작은 서 있는 상태에서 또는 무릎을 꿇고 있는 상태에서 또는 앉은 상태, 누워 있는 상태와 같은 한 곳에서 움직이는 동작이다. 그래서 비전이동작 또는 축을 중심으로 하는 동작(Axial Movement)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신체를 축으로 고정하여 다양한 움직임을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비이동 동작은 운동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창의적인 표현을 위한 탐색 과정에서 출발점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아동기에 신체 탐색을 하며 비이동 동작기술을 증진시키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된다.

① 무릎치기(Tapp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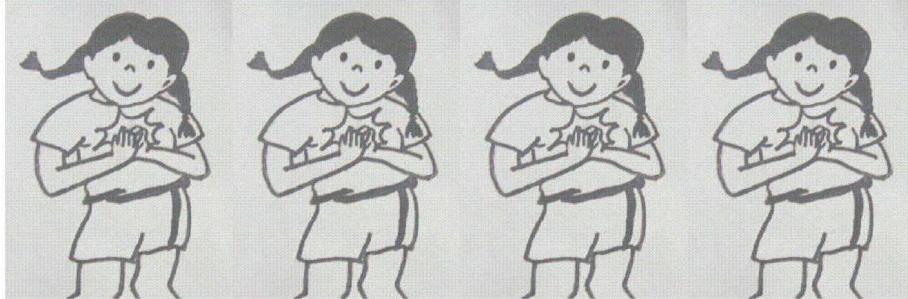
무릎치기는 일정한 박자에 맞추어 두 손으로 동시에 무릎을 치는 동작이다.



<그림 7> 무릎치기

② 손뼉치기(Clapp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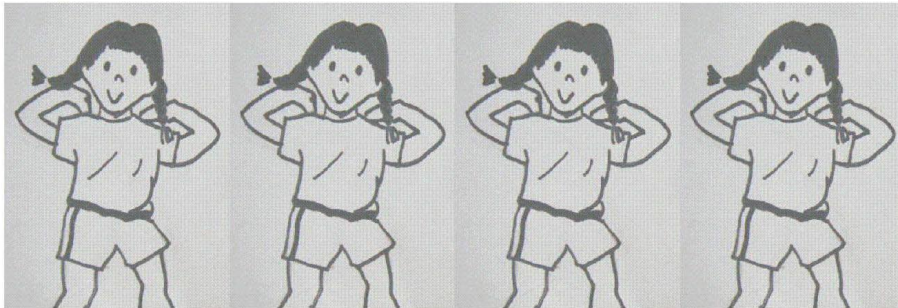
손뼉치기는 일정한 박자에 맞추어 양손을 부딪치는 동작이다.



<그림 8> 손뼉치기

③ 어깨치기(Tapping should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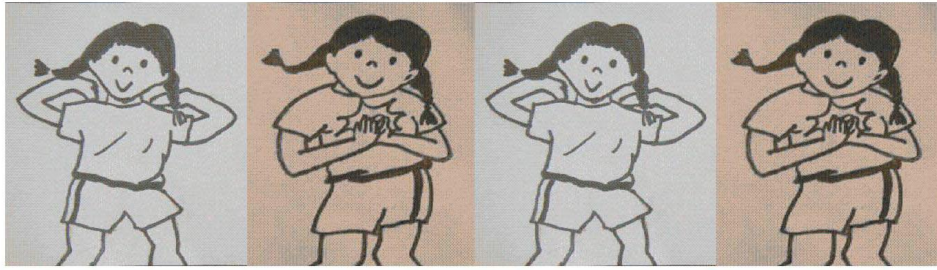
어깨치기는 일정한 박자에 맞추어 두 손으로 동시에 어깨를 치는 동작이다.



<그림 9> 어깨치기

④ 어깨치기 - 손뼉치기(Tapping shoulders - Clapping)

어깨치기 - 손뼉치기는 일정한 박자에 맞추어 두 손으로 동시에 어깨와 손뼉을 치는 동작을 반복하는 동작이다.



<그림 10> 어깨치기 - 손뽁치기

⑤ 어깨치기 - 손뽁치기 - 무릎치기 - 손뽁치기

(Tapping shoulders - Clapping - Tapping - Clapping)

어깨치기 - 손뽁치기 - 무릎치기 - 손뽁치기는 일정한 박자에 맞추어 두 손으로 동시에 어깨, 손뽁, 무릎, 손뽁치는 동작을 반복하는 동작이다.



<그림 11> 어깨치기 - 손뽁치기 - 무릎치기 - 손뽁치기

3) 조작적 동작(Manipulative movement)

조작적 동작은 도구를 사용하는 움직임을 일컫는다. 조작적 동작은 사물의 사용이 포함되는 큰 근육 운동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아동이 사물에 힘을 가하여 여러 다양한 동작을 함으로써 운동 기술을 도모함은 물론 공간속에서 움직이는 물체와의 관계를 탐색할 수 있게 된다). 이 조작 동작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동 동작과 비이동 동작이 우선 기초되어야

한다.

※ 다음의 <표 1>²¹⁾은 기초적 동작의 유형의 예를 도표화 한 것이다.

이동 동작	비이동 동작	조작적 동작
엎드려 기기(Crawling)	뻗기(Stretching)	당기기(Pull)
기어기기(Creeping)	구부리기(Bending)	밀기(Pushing)
걸기(Walking)	앉기(Sitting)	들어올리기(Lifting)
달리기(Running)	떨기(Shaking)	치기(Striking)
뛰기(Jumping)	회전하기(Turning)	던지기(Throwing)
뛰어넘기(Leaping)	흔들기(Rock and sway)	차기(Kicking)
말뛰기(Galloping)	흔들거리기(Swing)	공굴리기(Ball rolling)
앵금질(Hopping)	꼬기(Twisting)	공되받아치기(Volleying)
미끄러지기(Sliding)	피하기(Dodging)	공튀기기(Bouncing)
스킵(Skipping)	떨어지기(Falling)	잡기(catching)
기어오르기(Climbing)	구르기(Rolling)	드리블링(Dribbling)

<표 1> 기초적인 동작의 유형

3. 라반(Rudolf Laban)의 동작교육

라반은 음악교육에 동작활동을 적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로, 후에 음악 교수법의 큰 축인 달크로즈(E. J. Dalcroze), 코다이(Z. Kodaly), 오르프(C. Orff)와 고든(E. E. Gordon) 등이 모두 그들의 수업에 동작활동을 도입했다.²²⁾ 인간이 행하는 다양한 동작을 교육의 개념에 접목시켜 ‘동작교육’을 탄생시킨 라반과 그의 이론인 움직임의 교육원리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21) 배인자, 한규령, 전계서 p.76

22) 현경실, 전계서, p.474

1) 루돌프 라반²³⁾

체코슬로바키아에서 태어난 루돌프 라반은 일생동안 무용과 근로자의 일(Work)을 포함한 인간의 움직임(Human movement) 연구에 일생을 바친 안무가이자 철학자이며 교육자이다. 라반은 근로자를 위한 효율적인 인간의 움직임, 어린이를 위한 움직임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인간의 움직임’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신체나 신체의 부분들을 시간 및 공간에서 변화시키는 과정 내지 동작을 뜻한다. 라반은 이러한 인간의 움직임을 시간, 힘, 공간, 흐름 등 네 가지 요소로 구분하여 기본 동작과 움직임의 테마를 설명하였다. 라반은 또한 움직임의 4요소를 작용하게 하는 데는 인간의 노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라반은 움직임을 하기 위한 충동으로 움직임에 대한 ‘질적인 면’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노력이 모여져서 공간, 힘, 시간 및 흐름의 특성을 가진 움직임을 만든다.

2) 라반의 동작(움직임)의 구성요소²⁴⁾

라반은 인간의 움직임을 관찰하여 동작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는 인간은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 위하여 동작을 사용하고, 동작은 인간의 사고나 감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인간의 움직임을 관찰해 보면, 어린이나 원시인은 본능적으로 움직임을 매우 좋아하는데 성장하면서 문명의 이기와 문화에 접촉하면서 움직임과 점점 멀어진다고 주장하였다²⁵⁾.

23) 오연주 외, 전계서, pp.32~33

24) 박혜정, 『신체표현』 (서울: 교문사, 1994), pp.86~88

25) 이 영·전인옥·김은기, 『유아를 위한 창의적 동작교육』 (서울: 교문사, 2004)

그는 인간의 동작을 라반은 질적인 면과 양적인 면으로 나누어서 구분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① 질적인 면(Qualitative Aspect)

라반은 동작의 질을 좌우하는 요소는 시간, 무게, 공간, 흐름의 요소로 구분²⁶⁾하였다.

첫째는 시간(Time)이다. 인간 움직임에 있어서 시간이란 몸의 각 부분이 여러 가지 속도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예를 들면, 빨리 혹은 천천히 움직임이 가속되어 진행될 수 있고, 혹은 감속으로 진행 될 수 있으며, 리듬에 맞추어 움직일 수도 있다.

둘째는 무게(Weight) 또는 힘(Force)이다. 무게란 몸의 움직임에 있어서 근육의 수축 정도를 말한다. 즉, 움직임이 무거울 수도 있고 가벼울 수도 있는 상태이다. 사용하는 에너지에 따라 무거움과 가벼움, 강함과 약함으로 분리된다.

셋째는 공간(Space)이다. 공간이란 몸이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말한다. 몸의 각 부분이 여러 방향(앞, 뒤, 옆)으로, 여러 궤도(똑바로, 돌아서)로 그리고 여러 단계로 움직일 수 있다.

넷째는 흐름(Flow)이다. 흐름이란 움직임의 계속적 특징을 말한다. 쉽게 멈출 수 있는 움직임이 있는가 하면, 좀 더 계속적인 움직임이 있다.

라반은 이러한 움직임의 질적 요소를 작용하게 하는 인간의 노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라반은 노력을 움직임에 대한 질적인 면이라고 정의하였다. 이것

p.32

26) Laban, R, *The Mastery of Movement*. 3rd edition. (Lisa Ullman: Boston Plays Inc.,1971) p.85

은 인간이 시간, 무게, 공간 및 흐름을 배합하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체로 표현되는 노력은 인간 움직임을 만드는 내적 충동으로서, 인간을 움직이게 만드는 원인이며, 태도를 볼 수 있는 상징이기 때문에 노력의 연구는 춤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발달을 추구하는 체육과 다양한 영역의 교육 분야와 예술영역에도 적용될 수 있다.

② 양적인 면(Quantitative Aspect)

라반은 1975년에 인간 움직임의 양적 요소로서 신체(Body), 노력(Effort), 공간(Space), 관계(Relationship)를 이용하였다. 즉, 인간 움직임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로서 먼저 인간이 움직이는데 필요한 신체 부위가 있어야 하고, 몸을 움직이는 힘, 또는 노력이 있어야 하며, 공간이 있어야 하고 이 모든 것이 몸의 움직임과 함께 이루는 관계가 형성되므로 이를 중심으로 움직임을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²⁷⁾

이상의 내용을 명료화하면 <표 2>²⁸⁾와 같다.

목 표 영 역	내 용 영 역
신체 (신체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 (Body)	신체의 동작 신체 부위의 동작 신체의 활동 신체의 형태
노력 (신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Effort)	시 간 무게 공간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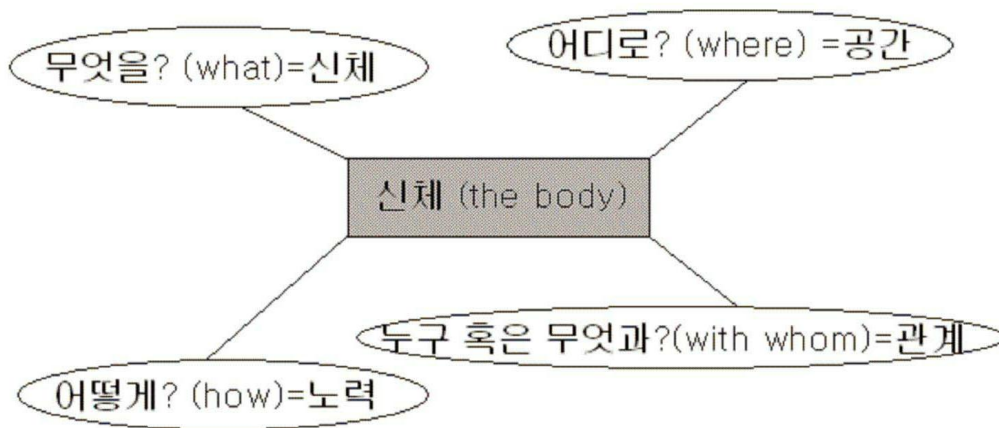
27) 배인자, 한규령, 전계서, p.68

28) 상계서, Laban, 1971에서 인용

공간 ----- (신체가 어디로 움직이는가?) ----- 구 역 (Space)	방향 수준 움직이는 길 움직이는 면 확장되는 공간
관계 -----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 ----- 신체부위 (Relationship)	개인 및 집단과의 관련성 도구와의 관련성 물체와의 관련성

<표 2> 라반의 동작 기본요소

다음의 그림은 동작의 기본요소를 신체를 중심으로 무엇을, 어디로, 누구와, 어떻게, 누구와 로 나누었다. 이는 <그림 12>²⁹⁾과 같다.



<그림 12> 동작의 기본요소

지금까지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인간이 움직이는 것은 주의깊게 관찰하였을 때 동작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인간이 만드시 동작을 하는데 만드시

29) 김은심, 전계서, p.85, Slater, 1993, p.3에서 재인용

필요한 신체가 있어야 하며, 몸을 움직이는 힘 또는 노력, 그리고 공간이 있어야 하고, 몸이 움직이면서 이루는 관계가 형성되므로 이를 중심으로 동작을 분석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 그림의 <표 3>³⁰⁾는 라반의 동작 개념 발달 단계를 기초로 한 동작의 기본 요소에 대한 주제와 내용을 재구성한 것이다.

요 소	주 제	개 념
신 체 (body)	신체부분	신체 안(근육, 뼈, 심장..)과 신체 밖(신체 각 부분)
	신체모양	신체 형태(크고 비틀어진 모양, 낮고 구부러진, 곧게 뻗은)
	신체동작	이동 동작과 비이동 동작
공 간 (space)	장 소	자기공간과 일반공간
	높낮이	높게, 낮게, 중간으로
	방 향	앞으로, 뒤로, 옆으로, 위로, 아래로,
	범 위	비스듬히 크고 작은 영역
	진 로	(바닥모양 ; 곡선, 직선, 비틀어진, 지그재그)
시 간 (time)	속 도	빠르게, 느리게
	강 세	강하게, 약하게
	지 속	길 게, 짧 게
힘 (force)	무 게	무거운, 가벼운
	흐 림	날카로운 - 부드러운 , 자유로운 - 제한된
관계 (relationship)	사람 (짝, 집단)	신체부분에 대한 반응, 관찰에 따른 적응 (예; 거울춤, 집단춤)
	과의 관계, 물체와의 관계	신체 부분과 물체(공, 평균대, 후프...)와의 조절

30) 배인자, 한규령, 전계서, pp.69~74

노력 (effort)	힘	(8개의 기본움직임)
	시간 흐름	밀어내기(Thrusting) : 뜨기(Floating) 내려베기(Slasing) : 미끄러지기(Sliding) 누르기(Pressing) : 털기(Flicking) 비틀기(Twisting) : 가볍게 치기(Tappingg)

<표 3> 라반의 동작개념 발달 단계를 기초로 한
동작의 기본요소에 대한 주제와 내용

4. 달크로즈의 신체표현

라반의 이론을 바탕으로 동작을 음악에 접목시켜 새로운 음악교육 이론으로 체계화시킨 달크로즈와 그의 이론인 유리드믹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1) 에밀 자크 달크로즈³¹⁾

달크로즈는 스위스 태생으로 작곡가, 지휘자, 피아니스트로 활약했고, 후에는 음악 교육가로써 음악계에 큰 공헌을 한 인물이다. 그는 음악을 이해하고 음악표현의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귀나 입으로 소리내는 방법을 훈련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인간의 몸 전체를 훈련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음악을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데에는 음악에 따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듣는 것은 움직임에 연결되고, 움직임은 느낌을 일으키며, 느낌은 근 감각의 작용으로 뇌에 보내지며, 뇌는 그것

31) 이홍수, 전계서, pp.308~317

을 다시 신경 체계를 통해 신체의 각 부위로 보낸다는 것을 알았다.

이러한 뇌의 연결 작용이 악보를 읽고 쓰고 즉흥적으로 표현하고 완벽한 연주를 하는 데 필요한 음악 논리적 사고의 과정을 거치도록 이끌어 주게 된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 또한 리듬이 음악뿐만 아니라 모든 예술의 기초이며 원동력이라고 믿었다. 인간의 삶은 심장의 박동, 숨결 등과 리듬을 지니고 있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리듬은 삶의 리듬과 같은 것이라는 생각이 그의 음악 지도의 원리가 되었다. 그는 음악적 요소(리듬, 가락, 화음, 형식, 셈여림 등)를 지도하기 위하여 그 요소를 먼저 신체적인 움직임을 통해 경험하도록 이끌었다. 그리고 음악에 따른 신체적 움직임은 가락의 흐름, 화성의 변화, 프레이즈 등 모든 종류의 음악적인 움직임을 파악하는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달크로즈는 몸을 하나의 악기로 보고, 학생들로 하여금 신체 동작을 통해 음악 표현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여러 가지의 음악적 개념을 형성하도록 이끌었다.

2) 달크로즈의 유리드믹스(Eurhythmics)

유리드믹스란 희랍어에서 나온 것으로 ‘훌륭한 리듬 혹은 흐름’이라는 뜻이다.³²⁾ 달크로즈는 당시 동작교육의 선구자인 라반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음악의 주된 요소는 리듬이고 모든 음악적 리듬의 원천은 사람의 신체에서 나오는 자연적인 리듬에 기초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여 ‘유리드믹스’라는 음악 지도 방법을 만들었다. 유리드믹스 교육의 출발은 아동의 내적 욕구를 끌어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데, 특히 음악의 경우 ‘듣는 욕구’ 즉, ‘듣고 싶다’는 내적 욕구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달크

32) 음악교육편집부, “몸짓의 문법을 포함한 세 가지 몸짓”, 「음악교육」, (1987, 3), p.34

로즈는 아동의 내적 욕구를 끌어내는 방법으로 ‘즉흥 반응’의 지도에 중점을 두었다. 예를 들어 강한 음이 들리면 곧 큰 바위가 되고, 약한 음이 들리면 작은 바위가 되어 보는 경험을 통해 아동은 음의 강약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그 개념을 습득해간다. 유리드믹스에서는 음악을 단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움직이고 느끼는 전 감각적인 교육 방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새로운 자신의 표현 수단을 개발해 나가게 된다.³³⁾

‘음’이란 것은 귀에 들릴 뿐이고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렇게 인간의 몸이라는 악기를 쓰면 음이 눈에 보이는 것이 된다. 그렇게 몸을 악기로 만드는 일, 그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드는 일-유리드믹스는 그런 목적을 가진 것이다.³⁴⁾

5. 연령적 시기에 따른 발달 특성과 동작³⁵⁾

아동의 성장 발달 시기는 연령에 따라 걸음마 시기(Toddler), 유치원 시기(Preschooler), 초등학교 초기(Early elementary schoolers)로 나뉜다. 각 시기마다 발달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걸음마 시기(Toddler)

33) 김영희·김영, 『유아를 위한 음률교육』 (서울: 창지사, 1991), pp.11~12

34) 子安美知子, 『슈타이너의 음악교육』 최시원역,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93) pp.68~69

35) 이춘희, 『창의적 유아동작교육』 (서울: 동문사, 1999), pp.27~35

이 시기는 영아기(Infant:0~2세) 후반이 포함되는 시기로서, 유아가 바로 선 자세로 자신의 신체를 옮길 수 있는 걷기 동작이 보다 능숙하게 발달되는 18개월에서 36개월 사이를 의미한다.³⁶⁾ 이 시기에는 운동 능력이 급속히 출현하기는 하지만 다양한 동작활동을 할 만한 큰 근육 운동이 충분하지 못하다. 또한 여기저기에 관심을 두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유아들의 집중 간격이 매우 짧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많은 것이다. 이 걸음마 시기의 유아는 걷기와 달리기, 뛰어넘기와 같은 동작 기술이 아직은 미성숙하고 불안정하다.

2) 유치원 시기(Preschooler)

걸음마 시기 이후 3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기를 유치원 시기로 본다. 이 시기는 더 많은 기술이 획득되는 시기이다.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도 이 시기에 급속히 증진되며, 조작적 동작기술도 발달하게 된다. 3세 이후에는 공간 개념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며, 모양이나 크기, 색에 대해 인식하기도 한다. 유아 초기의 운동 기술은 불완전해 보이기 때문에 유아 나름대로의 성장 단계에 따라 오랜 시일이 걸려 운동 기술이 획득되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3세 이후 유아기 동안에는 ‘이동 동작’이나 ‘비이동 동작’, ‘조작적 동작’ 활동을 다양하게 경험함으로써 기초적인 운동 기술 능력을 증진시켜야 한다. 동작 경험을 할 때에는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점진적으로 진전시켜야 한다.

36) Pica, op. cit., p.39

3) 초등학교 초기(Early elementary schoolers)

일반적으로 6세에서 8세까지를 말하며 초등학교 1학년 정도의 아동들은 여러 발달 측면이 상급 학년보다는 유치원 시기의 유아들과 흡사하다.³⁷⁾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아동들은 대부분 교과서에 의한 교사의 강의를 중심으로 학습지 등 앉아서 하는 활동을 통한 학습을 많이 하고 있다. 달리기나 뛰기 등 움직이는 활동보다 앉아서 오랜 시간 지내게 함으로써 유아를 더욱 지치게 만든다는 것이다.³⁸⁾ 사실 발달에 적합한 초등학교 초기 교육 프로그램도 전인적 발달을 추구하는 유치원 교육 프로그램과 같은 능동적이고 통합적인 학습 경험처럼 이루어져야 한다.³⁹⁾

이 시기에는 영·유아기만큼 급속한 성장 속도를 나타내지는 않으며, 후반부로 갈수록 속도는 느리지만 꾸준히 증가한다.⁴⁰⁾ 5세 정도에는 기술적인 운동 능력이 나타나며, 6세가 되면 거의 모든 동작기술은 성숙된 형태로 나타난다. 또한 이 시기의 아동들은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려 하며, 새로 습득한 신체적 기술을 보여주고 싶어한다.

초등학교 초기의 아동에게는 새롭게 얻게 된 운동 기술에 특별히 관심을 두어야 하며, 가능한 다양한 동작 기술을 충분히 경험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동 동작과 비이동 동작을 다양하게 조화시켜 변화를 주는 동작 활동을 해 볼 수 있고, 특정한 리듬의 패턴에 따라 동작 할 수 있다. 또한, 미래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므로 집단에서의 동작활동을 통하여 자의식(Self-consciousness)을 높여주는 기회를 만들어주어, 다른 사람과 함께 활

37) 이춘희, 전계서, p.30, Charleswarth, 1992에서 재인용

38) 상계서, Bredekamp, 1987, p.63에서 재인용

39) Pica, op. cit., p.64

40) 이춘희, 전계서, 이영, 1993, p.47에서 재인용

동하면서 자신에게만 중심을 두는 특성을 감소시켜야 한다.

6. 선행연구 고찰

최근의 우리나라 아동 동작교육의 연구경향은 창의적 동작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많이 연구되고 있다. 본 연구를 위하여 아동의 성과 연령이 동작표현력에 미치는 영향과 교수-학습 방법이 아동의 동작표현력에 미치는 영향, 교사의 태도와 역할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성·연령에 따른 아동의 창의적 동작표현력

전인옥은 아동의 성과 연령이 아동의 창의적 동작표현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아동의 성별에 관계없이 높은 연령집단에 속한 아동의 동작표현력이 낮은 연령집단에 속한 아동의 동작표현력보다 유의하게 발달함을 보고하고 있다. 그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아의 동작표현력이 남아의 동작표현력보다 우세하지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은 반면, 연령집단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유치반 아동의 동작표현력이 유아반 아동보다 유의하게 표현력이 더 다양하고 표현시간이 더 지속됨을 보여주었다.⁴¹⁾

김신자는 아동의 연령과 성이 아동의 동작을 통한 창의적 신체 표현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연구한 결과, 여아의 창의적 동작표현력이 남아의

41) 전인옥, “유아의 성·연령집단과 교사의 질문유형이 유아의 창의성과 동작표현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논문집 19」 1995, pp.569-592

동작 표현력보다 우수하였지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은 반면에 연령의 증가에 따른 아동의 동작표현력에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6세 아동의 동작 표현력이 5세의 아동보다 유의하게 우수함을 보여주었다.⁴²⁾

2) 동작교육의 교수-학습방법이 아동의 동작표현력에 미치는 영향

김혜옥은 동작의 기본개념을 주제로 하는 동작활동을 아동에게 실시한 후 동작표현력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아동이 통제집단의 아동보다 동작표현력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였다.⁴³⁾

김미숙은 동작교육의 교수-학습방법이 신체표현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5세 아동 90명을 대상으로 실험연구를 하였다. 그 결과 매주 2~3회 30분간 창의력 향상을 위한 아동 중심의 자발적인 동작교육을 실시한 실험집단이 교사 중심의 주입식 동작교육을 실시한 비교집단이나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통제집단에 비해 동작의 표현성, 지속성, 방향성 및 독창적인 사고력과 동작교육에 대한 흥미도의 영역에서 유의하게 신장되었음을 밝혔다. 즉, 창의적인 동작활동의 교수-학습방법이 아동의 신체표현력이나 창의력 사고 및 흥미도를 긍정적으로 발달시키는 데 효과가 있음을 실증하였다.⁴⁴⁾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만수는 동작교육의 교수-학습방법에서 보다 구체적인 교사의 질문유형이 아동의 창의적인 신체표현력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 연구하였다. 그 결과, 교사의 질문 유형이 아동의 창의적인 질문 집단과 재

42) 김신자, “창의적 표현활동과 유아의 성, 연령, 가정환경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1989)

43) 김혜옥, “유아의 동작활동 효과에 관한 기초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1984)

44) 김미숙, “창의적 지도법이 유아의 신체표현 능력 및 창의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1985)

생 기억적 질문보다 더 표현력이 다양하고 표현력이 더 지속되어짐을 밝혔다. 이 연구를 통하여 이만수는 동작활동의 주체가 너무 한정적이며 교사주도의 동작활동이 이루어지는 실제 동작교육 현장에 보다 다양한 동작활동의 주체가 개발되어야 함과 창의적인 동작표현을 자극할 수 있는 교수-학습방법이 요망됨을 제언하였다.⁴⁵⁾

3) 교사의 태도와 역할에 따른 아동의 창의적 동작 표현력

김혜정은 창의적 동작교육의 중요한 변인인 교사의 태도를 연구하기 위해 서울지역 39개 유치원 교사 109명을 대상으로 조사·연구한 결과, 동작교육의 개념과 창의적 동작교육의 필요성 및 교육환경에 대해서는 교사가 높은 이해도를 보여주고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실제 동작교육현장에서는 창의적인 동작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의 부족과 교수-학습방법이 결여되어 있고, 동작교육의 환경의 미비로 인해 아동의 동작의 동작표현력 발달을 돕기에 질적으로 낮은 동작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하였다.⁴⁶⁾

45) 이만수, “교사의 질문유형이 유아의 창의적 신체표현 활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1991)

46) 김혜정, “창의적 동작교육에 대한 유치원 교사의 태도분석”,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88)

III.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아동들의 나이에 따른 특성을 고려하여 음악의 일정 박에 맞추어 할 수 있는 동작활동 능력을 조사하고 본 연구자가 직접 제작한 음악에 따른 동작활동 측정도구를 만 5, 6, 7세 아동들에게 직접 적용하여 조사한 후, 나이별로 각각의 동작활동이 음악에 맞추어 얼마나 정확하게 수행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과 서울 근교에 위치한 어린이집 및 음악학원 3곳과 초등학교 3곳을 선정하여 나이별로 5세(취학 전), 6세(초등학교 1학년), 7세(초등학교 2학년) 아동인 총 135명의 아동을 연령별로 45명씩 나누어 측정하였다. 실험 측정 시 연령별로 한 그룹 당 인원은 3명이며, 이를 도표화하면 <표 4>와 같다.

연구기간은 2004년 10월 4일부터 10월 16일 사이에 서울과 서울 근교에 위치한 초등학교 세 곳과 어린이집 한 곳, 음악학원 두 곳 총 여섯 기관을 방문하여 각 기관의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구 분	교육 기관	인 원 수	계
만 5세 (취학 전 아동)	A	8	45
	B	18	
	C	19	
만 6세 (초등학교 1학년)	A'	11	45
	B'	20	
	C'	14	
만 7세 (초등학교 2학년)	A''	15	45
	B''	16	
	C''	14	

A : 아름다운 음악원 A' : 지도초등학교 A'' : 지도초등학교
 B : 조이음악학원 B' : 서교초등학교 B'' : 서교초등학교
 C : 지원어린이집 C' : 능곡초등학교 C'' : 능곡초등학교

<표 4> 나이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인원 수

2. 연구도구

본 연구를 위하여 연구자가 직접 제작한 음악에 따른 동작활동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그룹 별 측정시간은 교사의 지시사항과 동작활동 시간을 포함하여 약 8분이다.

1) 음악선정

음악선정에 있어 각 동작 문항의 동작들을 이끌어 내기에 가장 좋은 악곡들로 수록되어 있는 ‘달크로즈 유리드믹스 클래스를 위한 즉흥 연주곡집⁴⁷⁾’에서 5곡을 발췌하여, 각 동작에 따라 빠르기를 변형하여 음악사보 프로그램인

47) Joy Yelin, 『달크로즈 유리드믹스 클래스를 위한 즉흥 연주곡집』 (서울: 태림출판사, 2001)

피날레(Finale)를 이용하여 악보를 사보하고, 웨이브 파일로 변환하여 CD로 제작하였다. 모든 음색은 피아노를 사용하였다.<부록 3>

① 걷기(45초)

걷기 동작문항은 ‘작은별’(Twinkles) 선율을 사용하였다. 이 음악은 두 박자 계통의 곡으로 아동들이 일정한 박자에 따라 걷기에 적당한지 확인한 뒤 결정하였다. 아동들이 무리 없이 걸을 수 있도록 음악의 템포는 보통빠르기인 $\text{♩} = 120$ 을 사용하였다.

② 달리기(33초)

달리기 동작문항은 ‘작은별’ 선율을 사용하였다. 이 음악은 두 박자 계통의 걷기 동작문항에 기초한 리듬 변주곡으로 아동들이 일정한 박자에 따라 달리기 적당한지 확인한 뒤 결정하였다. 음악의 템포는 걷기 동작보다 훨씬 빠르게 설정하고, 아동들이 무리 없이 달릴 수 있도록 음악의 템포는 $\text{♩} = 180$ 을 사용하였다.

③ 제자리높이뛰기(29초)

제자리높이뛰기 동작문항은 스위스 민속음악 선율 중에서 한 곡을 선택하였다. 이 음악은 세 박자 계통의 왈츠 풍의 곡으로 아동들이 일정한 박자에 따라 제자리높이뛰기 동작을 하기에 적당한지 확인한 뒤 결정하였다. 음악의 템포는 아동들이 무리 없이 동작에 임할 수 있도록 $\text{♩} = 140$ 으로 설정하였다.

④ 앵금질(31초)

앵금질 동작문항은 제자리높이뛰기의 동작문항과 같은 곡인 스위스 민속음악 선율을 선택하였다. 그 이유는 세 박자 계열의 곡은 제자리높이뛰기와 앵금질과 같이 뛰는 동작을 하기에 적합하고, 각각의 동작문항 측정 시 모두 다른 곡을 사용하면 아동들에게 짧은 시간 안에 동작을 인지하고 음악에 맞추어 수행하기에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아동들이 일정한 박자에 따라 앵금질 동작을 하기에 적당한지 확인한 뒤, 음악의 템포는 아동들이 무리 없이 동작에 임할 수 있도록 제자리높이뛰기 동작보다는 약간 느리게 $\downarrow=130$ 으로 설정하였다.

⑤ 스키핑(46초)

스키핑 동작문항은 ‘작은별’ 선율을 사용하였다. 이 음악은 두 박자 계통의 불점이 들어가는 곡으로 걷기 동작문항에 기초한 리듬 변주곡으로 아동들이 일정한 박자에 따라 스키핑 동작을 하기에 적당한지 확인한 뒤 결정하였다. 음악의 템포는 아동들이 무리 없이 불점 리듬에 적응할 수 있도록 $\downarrow=130$ 을 사용하였다.

⑥ 비이동 동작문항(20초 * 5문항)

비이동 동작은 6번~10번까지의 동작 문항으로 ‘지옥의 오르페우스’의 선율을 선택하였다. 비이동 동작 모두 같은 음악을 사용한 이유는 비이동 동작 문항은 모두 앉아서 수행하는 동작이고, 이동 동작문항에 비해 각 동작의 지

시 형태가 비슷하기 때문이다. 아동들이 일정한 박자에 따라 동작을 하기에 적당한지 확인한 뒤, 음악의 템포는 아동들이 무리 없이 동작에 임할 수 있도록 $\downarrow=160$ 으로 설정하였다.

2) 동작선정

이 실험의 동작 문항은 이동, 비이동 두 가지 동작 영역으로 나누어, 음악의 박자에 맞추어 교사의 요구에 따라 동작하는 것으로, 동작 선정기준은 수업이나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동작을 선택하였다.

이동 동작과 비이동 동작 각각은 5문항씩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동 동작은 걷기, 달리기, 제자리높이뛰기, 앵금질, 스키핑이고, 비이동 동작은 무릎치기, 손뼉치기, 어깨치기, 어깨치기-손뼉치기, 어깨치기-손뼉치기-무릎치기-손뼉치기로 구성되어 있다.<표 5>

평가영역 문항	이동 동작	평가영역 문항	비이동 동작
1	걷기 (Walking)	6	무릎치기 (Tapping)
2	달리기 (Running)	7	손뼉치기 (Clapping)
3	제자리높이뛰기 (Jumping)	8	어깨치기 (Tapping shoulders)
4	앵금질 (Hopping)	9	어깨치기 - 손뼉치기 (Tapping shoulders - Clapping)
5	스키핑 (Skipping)	10	어깨치기 - 손뼉치기 - 무릎치기 - 손뼉치기 (Tapping shoulders - Clapping - Tapping - Clapping)

<표 5> 이동 동작과 비이동 동작으로 나뉜 평가영역 문항

3. 연구절차

본 연구의 절차를 진행 시간적 순서에 따라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음악에 따른 동작활동 측정도구 제작

본 연구는 실험집단에게 측정하기 위해 동작을 다각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동작활동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측정의 목적 및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음악에 따른 동작활동 측정도구를 개발 계획하였다.
- ② 아동의 음악적 능력발달관련 연구물과 도구들을 검토하여 동작활동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기존에 사용된 실험도구를 조사 연구하였다.
- ③ 수집된 자료와 문헌 분석을 통한 영역을 설정하여 실험조사 할 아동들의 측정기준 영역을 설정하였다.
- ④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동작활동 선정 및 문항을 개발하고 실험조사 할 아동들의 동작활동 측정도구를 제작하였다.
- ⑤ 전문가의 견해(교수님, 음악교육 전공자)를 바탕으로 측정도구를 수정·보완하여 동작활동 측정도구의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 ⑥ 동작활동 측정을 시 전에 앞서 측정도구의 적절성과 도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아동들의 반응을 미리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대상의 연령에 속하는 아동 중에서 각각 1명씩을 대상으로 예비검사를 실시하여 평가의 실시시간, 평가 활동 진행상의 문제점, 평가도구 사용의 문제점을 알아보았다.

2) 음악에 따른 동작활동 측정

본 연구의 실험집단인 5, 6, 7세의 아동을 나이별로 45명씩 총 135명을 대상으로 하여 음악에 따른 동작활동을 측정하였다. 이 측정은 소집단 평가 방식으로 동작활동 전 과정을 VTR 촬영하였다. 촬영 후에 녹화된 테이프를 보며 연구자와 사전 훈련을 받은 다른 평가자 2명이 한 그룹 당 약 5분 정도에 걸쳐 본 연구자가 고안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였다.

- ① 실험 실시하기 전에 측정 시 필요한 본 연구자 이외에 다른 보조자 3명과 실험 후의 평가자 2명을 선정하여 동작활동에 대한 인식과 동작활동 능력 검사의 평가기준을 숙지시켰다.
- ② 모든 동작활동 실험은 각 교육기관의 별도로 마련된 활동실에서 실시하였다.
- ③ VTR 촬영은 모방동작이나 방관자적 행동을 줄이기 위하여 한 그룹에 3명으로 정하고, 카메라의 위치는 3명의 아동의 전신이 나오게 초점을 두고 아동들의 정면 모습이 촬영되도록 앞쪽 중앙에 설치하였다.
- ④ 측정 시 동작 진행은 본 연구자가 실시하였고, 본 연구자 이외의 다른 3명의 보조자는 동작활동 진행되는 동안 각각 VTR 촬영, 카메라 촬영, 학생 인솔을 맡았다.
- ⑤ 측정 시 주의사항
 - (ㄱ) 모든 동작 문항은 자리를 이동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실시한다.
 - (ㄴ) 자연스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유도한다.
 - (ㄷ) 하기 싫어하는 피험자가 있다면 다음 기회를 준다.

- (㉔) 피험자가 주위 환경에 신경이 쓰지 않도록 잘 배려한다.
- (㉕) 피험자가 부끄러움을 탈 경우 장소를 바꾸는 등 배려한다.
- (㉖) 첫 번째 반응이 없을 경우 한 번의 기회를 더 준다.

3) 평가기준

평가기준은 실험이 종료되고 전반적인 동작의 흐름을 관찰한 이후에 연구자 이외에 다른 음악 교육 전공자 2명과 함께 상의하여 제작하였다. 체점 시 평가 점수는 1, 2, 3, 4점으로 나누고, 수행한 기준과 수행하지 못한 기준을 <표 6>과 같이 만들어, 이를 토대로 동작활동 수행 여부에 따라 O와 X로 분류하였다.

각 점수의 평가기준에 있어 4점은 처음부터 끝까지 음악의 일정 박에 맞추어 정확히 동작을 수행한 경우에 해당된다. 3점은 처음 두 프레이즈는 음악의 일정 박에 맞추지 못하다가 그 다음부터 맞추거나, 처음 두 프레이즈는 음악의 일정 박에 맞추다가 그 다음부터 맞추지 못할 경우에 해당된다. 2점은 음악의 일정 박에 맞추어 두 프레이즈만 동작을 수행하는 경우이고, 1점은 처음부터 끝까지 음악의 일정 박에 맞추어 동작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음악과 관계없이 동작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음악의 일정 박에 맞추어 동작을 수행한 경우 (O)		음악의 일정 박에 맞추어 동작을 수행하지 못한 경우 (X)	
4점	• 처음부터 끝까지 음악의 일정 박에 맞추어 정확히 동작을 수행한다.	2점	• 음악의 일정 박에 맞추어 두 프레이즈만 동작을 수행한다.
3점	• 처음 두 프레이즈는 음악의 일정 박에 맞추지 못하다가 그 다음부터 맞춘다. • 처음 두 프레이즈는 음악의 일정 박에 맞추다가 그 다음부터 맞추지 못한다.	1점	• 처음부터 끝까지 음악의 일정 박에 맞추어 동작을 수행하지 못한다. • 음악의 일정 박과 관계없이 동작을 수행하지 못한다.

<표 6> 동작문항의 평가도구

4) 채점

채점은 모든 동작활동 측정이 끝난 후 본 연구자 이외에 동작활동에 대한 인식과 동작활동 측정도구의 평정기준을 숙지한 다른 평가자 2명이 함께 녹화된 테이프를 비디오로 보며, 평가 결과지에 각 동작활동 수행 여부에 1, 2, 3, 4점으로 평가하고, 연구자가 고안한 평가지에 바로 기록하였다.<부록 2> 이때 3인의 평가자들은 서로 간에 상의하여 기록하지 않았으며, 평가자 자신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채점하였다. 차후에 평가기준에 따라 O와 X로 분류하여 다시 채점결과를 코딩하였다.

4. 연구 분석 방법

비디오에 측정된 각 연령에 해당되는 45명 씩 총 135명을 본 연구자 이외에 다른 두 명의 평가자가 함께 채점하였다. 채점된 3인의 평가자 점수는 크론바흐 알파계수⁴⁸⁾(Cronbach' alpha)를 사용하여 평가자 신뢰도(각 동작에서의 평가자간의 신뢰도, 각 나이에서의 평가자간의 신뢰도)를 알아보았다. 또한 5, 6, 7세의 아동들이 나이가 동작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카이-스퀘어 검정⁴⁹⁾(Chi-square)을 실시하고, 프로그램은 SAS V.8.1을 사용하였다.

48) Cronbach's Alpha: 신뢰도 계수 알파는 측정의 내적 구조가 일관성을 보이는 정도를 나타낸다

49) chi-square: 카이-스퀘어와 크래머 V 카이-스퀘어는 명명 수준에서 측정된 두 변수들 간의 관계에 대한 통계적 유의도를 나타낸다. 무작위 표집된 데이터 내의 관계가 모집단 내의 실제 관계를 반영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지를 판단한다.

IV. 음악에 따른 동작활동 측정도구

이 동작활동 측정도구는 이동 동작과 비이동 동작에 관한 문항들을 음악의 일정한 박자에 맞추어 교사의 요구에 따라 동작하는 것이다. 각 문제마다 전주 부분은 선생님과 함께 동작하고, 전주가 끝나고 본 곡이 연주되기 시작하면 교사는 동작을 멈추고 아동들에게 동작을 계속 진행시킨다.

모든 동작의 음악은 미디어로 녹음한 음악을 사용하였고, 이동 동작과 비이동 동작 각각은 5문항씩 총 10문항이며, 한 그룹 당 측정시간은 약 8분 정도 소요된다. 이동 동작에는 걷기, 달리기, 높이뛰기, 양감질, 스키핑의 다섯 가지 동작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비이동 동작은 무릎치기, 손뼉치기, 어깨치기, 어깨치기-손뼉치기, 어깨치기-손뼉치기-무릎치기-손뼉치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비이동 동작에는 난이도를 두기 위하여 둘 이상의 동작들을 섞어서 실시하는 문항을 포함하였다.

1. 이동 동작문항 (1번~5번)

(1) ~ (5)번까지는 이동 동작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각 문항별로 사용한 음악이 각각 다르며, 각각의 동작을 시작하기 전에 교사의 동작에 관한 지시사항 듣고 실시한다.

1) 걷기 (Walking)

- 평가목표 : 피험자는 음악의 일정 박에 맞춰 걸을 수 있는가?

이 문항은 전주 후 본 음악에서 일정 박에 맞추어 걷는 것으로, 음악의 빠르기는 $\downarrow=120$ 이며 측정시간은 45초이다. 모든 문항을 시작하기 전에 지시사항이 있으며, 잘 설명한 뒤에 실시하여야 한다.

지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실험을 진행할 동작 선생님입니다.
이 실험은 여러분이 제자리에서 음악의 일정한 박자에 맞추어 여러 가지 동작을 하는 것입니다.
음악에 맞추어 걷고, 달리고, 제자리에서 높이 뛰어보고, 갱깁이하고, 스킵핑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교사의 시범이 뒤따른다)
음악을 들으며 재미있게 선생님을 잘 따라하세요.
각 문제마다 전주 부분은 선생님과 함께 합니다. 전주가 끝나고, 선생님이 동작을 멈추더라도 여러분은 음악이 끝날 때까지 그대로 동작을 진행해 주세요.
처음에는 음악에 맞추어 걷는 동작입니다.(시범)
음악을 들으며 선생님을 잘 보고 따라하세요.

2) 달리기 (Running)

- 평가목표 : 피험자는 음악의 일정 박에 따라 달리기를 할 수 있는가?

이 문항은 전주 후 본 음악에서 일정 박에 맞추어 달리기 동작을 하는 것으로

로, 음악의 빠르기는 $\downarrow=180$ 이며 측정시간은 33초이다.

지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번에는 음악에 맞추어 달리는 동작입니다.(시범)
음악을 들으며 선생님을 잘 보고 따라하세요.

3) 제자리높이뛰기 (Jumping)

- 평가 목표 : 피험자는 음악의 일정 박에 맞추어 제자리에서 높이뛰기를 할 수 있는가?

이 문항은 전주 후 본 음악에서 일정 박에 맞추어 제자리높이뛰기 동작을 하는 것으로, 음악의 빠르기는 $\downarrow=140$ 이며 측정시간은 29초이다.

지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번에는 음악에 맞추어 제자리에서 높이 뛰는 동작입니다.(시범)
음악을 들으며 선생님을 잘 보고 따라하세요.

4) 앵금질 (Hopping, 일명 꺽꺽이)

- 평가 목표 : 피험자는 음악을 들으며, 음악의 일정 박에 맞추어 한 발로 뿔 수 있는가?

이 문항은 전주 후 본 음악에서 일정 박에 맞추어 앵금질 동작을 하는 것으로, 음악의 빠르기는 $\downarrow=130$ 이며 측정시간은 31초이다.

지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번에는 음악에 맞추어 갱깡이를 하는 동작입니다.(시범)
음악을 들으며 선생님을 잘 보고 따라하세요.

5) 스키핑(Skipping)

· 평가 목표 : 피험자는 음악의 일정 박에 맞추어 스키핑을 할 수 있는가?

이 문항은 미디어로 녹음한 불점 리듬의 음악을 사용하였다. 전주 후 본 음악에서 일정 박에 맞추어 스키핑 동작을 하는 것으로, 음악의 빠르기는 $\downarrow=130$ 이며 측정시간은 46초이다.

지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번에는 음악에 맞추어 스키핑을 하는 동작입니다.(시범)
음악을 들으며 선생님을 잘 보고 따라하세요.

2. 비이동 동작문항 (6번~10번)

(6) ~ (10)번까지는 비이동 동작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측정시간은 각 문항당 20초이며 모두 같은 음악을 사용하였으며, 음악의 빠르기는 $\downarrow=160$ 이다. 이동 동작과 같이 각각의 동작을 시작하기 전에 교사의 동작에 관한 지시사항 듣고 실시한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앉아주세요.
지금부터는 같은 음악을 듣고 여러 가지 동작을 합니다.
무릎치고, 손뼉치고, 어깨치기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시범)
자! 시작합니다.

6) 무릎치기 (Tapping)

- 평가 목표 : 피험자는 음악의 일정 박에 맞추어 두 손으로 동시에 무릎을 칠 수 있는가?

지시사항 : 처음에는 음악에 맞추어 무릎을 치는 동작입니다.(시범)
음악을 들으며 선생님을 잘 보고 따라하세요.

7) 손뼉 치기 (Clapping)

- 평가 목표 : 피험자는 음악의 일정 박에 맞추어 손뼉 치기를 할 수 있는가?

지시사항 : 이번에는 음악에 맞추어 손뼉을 치는 동작입니다.(시범)
음악을 들으며 선생님을 잘 보고 따라하세요.

8) 어깨치기 (Tapping shoulders)

- 평가 목표 : 피험자는 음악의 일정 박에 맞추어 손으로 어깨치기를 할 수 있는가?

지시사항 : 이번에는 음악에 맞추어 손으로 어깨를 치는 동작입니다.(시범)
음악을 들으며 선생님을 잘 보고 따라하세요.

9) 어깨치기 (Tapping shoulders) - 손뼉치기(Clapping)

- 평가 목표 : 피험자는 음악의 일정 박에 맞추어 어깨와 손뼉을 차례로 번갈아 칠 수 있는가?

지시사항 : 이번에는 음악에 맞추어 손으로 어깨치기와 손뼉을 치는 것을 차례로 반복하는 동작입니다.(시범)
음악을 들으며 선생님을 잘 보고 따라하세요.

10) 어깨치기(Tapping shoulders)-손뼉치기(Clapping)

-무릎치기(Tapping)-손뼉치기(Clapping)

- 평가 목표 : 피험자는 음악의 일정 박에 맞추어 어깨 -손뼉 - 무릎 - 손뼉을 차례로 할 수 있는가?

지시사항 : 이제 마지막 동작입니다. 이번 동작은 음악에 맞추어 어깨치고 손뼉치고 무릎치고 손뼉치는 것을 반복하는 동작입니다.(시범)
음악을 들으며 선생님을 잘 보고 따라하세요.

V. 연구결과 및 해석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평가자 신뢰도

본 연구의 평가자 신뢰도는 크론바흐 알파를 이용한 계수를 사용하였다. 그 전체 신뢰도는 .92로 평가자 3인의 평가가 거의 일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본 연구의 평가기준이 객관적이었다는 것이 입증된다. <표 7>, <표 8>을 보면 신뢰도가 대부분 .9이상으로 각 나이에에서의 평가자 신뢰도와 각 동작에서의 평가자 신뢰도가 특정한 부분에 치우침 없이 높게 나왔으므로 본 연구자가 고안했던 평가기준이 객관적이었음이 입증되었다.

연 령	신뢰도
만 5세(취학 전 아동)	.92
만 6세(초등학교 1학년)	.90
만 7세(초등학교 2학년)	.91

<표 7> 각 나이에에서의 평가자 신뢰도

이동동작문항	신뢰도	비이동동작문항	신뢰도
걷기	.93	무릎치기	.92
달리기	.89	손뼉치기	.93
제자리높이뛰기	.86	어깨치기	.88
앵금질	.82	어깨-손뼉	.91
스키펡	.87	어깨-손뼉-무릎-손뼉	.88

<표 8> 각 동작에서의 평가자 신뢰도

2. 음악의 일정 박에 맞춘 각 동작의 난이도

1) 음악의 일정 박에 맞춘 이동 동작의 난이도

음악의 일정 박에 맞추어 이동 동작문항의 성취한 정도를 보면 각각 걷기는 83.45%, 달리기는 61.6%, 제자리높이뛰기는 47.9%, 앵금질은 27.41%, 스키핑은 7.65%를 수행하였다. 성취율 순으로 보면 걷기, 달리기, 제자리높이뛰기, 앵금질, 스키핑으로 아동들에게 있어 걷기가 가장 쉬운 동작임을 알 수 있었으며, 스키핑이 가장 어려운 동작임을 알 수 있었다.

동작문항	동작을 수행하지 못한 학생수/백분율(%)	동작을 수행한 학생수/백분율(%)
걷기	67(16.54)	338(83.45)
달리기	196(48.39)	209(61.60)
제자리높이뛰기	211(52.09)	194(47.90)
앵금질	294(72.59)	111(27.41)
스키핑	374(92.34)	31(7.65)

<표 9> 음악의 일정 박에 맞춘 이동 동작의 성취율

2) 음악의 일정 박에 맞춘 비이동 동작의 난이도

음악의 일정 박에 맞추어 비이동 동작 문항의 성취한 정도를 보면 각각 무릎치기는 62.96%, 손뼉치기는 57.78%, 어깨치기는 64.44%, 어깨-손뼉치기는 49.13%, 어깨-손뼉-무릎-손뼉치기는 22.22%를 수행하였다. 성취율 순으로 보면 어깨치기, 무릎치기, 손뼉치기, 어깨-손뼉치기, 어깨-손뼉-무릎-손뼉치기의 순서로. 아동들에게 있어 어깨치기가 가장 쉬운 동작임을 알

수 있었으며, 어깨-손뺨-무릎-손뺨치기 가장 어려운 동작임을 알 수 있었다.

비동작문항	동작을 수행하지 못한 학생수/백분율(%)	동작을 수행한 학생수/백분율(%)
무릎치기	150(37.03)	255(62.96)
손뺨치기	171(42.22)	234(57.78)
어깨치기	144(35.55)	261(64.44)
어깨-손뺨	206(50.86)	199(49.13)
어깨-손뺨-무릎-손뺨	315(77.78)	90(22.22)

<표 10> 음악의 일정 밖에 맞춘 비이동 동작의 성취율

3) 음악의 일정 밖에 맞춘 전체 동작의 난이도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음악의 일정 밖에 맞추어 이동 동작과 비이동 동작을 합친 전체 동작의 난이도는 걷기, 어깨치기, 무릎치기, 달리기, 손뺨치기, 어깨치기-손뺨치기, 체자리높이뛰기, 앵금질, 어깨-손뺨-무릎-손뺨, 스키핑의 순서로 걷기 동작이 가장 쉬운 동작이었으며, 스키핑 동작이 가장 어려운 동작임을 알 수 있었다.

3. 나이별 음악의 일정 밖에 맞춘 각 동작의 성취율

다음은 카이 제곱(*)의 확률 값을 가지고 나이에 따라 각각의 동작이 음악의 일정 밖에 맞추어 동작하는 것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것이다.

1) 나이별 음악의 일정 박에 맞춘 이동 동작의 성취율

① 나이별 음악의 일정 박에 맞춘 걷기의 성취율

음악의 일정 박에 맞추어 걷는 동작은 만 5세는 60.74%, 6세는 91.85%, 7세는 97.78%를 수행하였다. 카이 제곱의 값은 77.401이고 확률 값은 0.000으로, 유의도 .001 레벨에서 나이에 따라 중요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이러한 결과는 나이에 따라 음악의 일정 박에 맞추어 걷기 동작에 차이가 있음을 증명한다. 6, 7세는 서로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5세와 6세 사이에는 6, 7세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음악에 맞추어 걷는 능력은 5세에서 6세 사이에 급격히 발달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값	유의확률
	77.401	0.000
$P < .001$		

연령	동작을 수행하지 못한 학생 수/백분율(%)	동작을 수행한 학생 수/백분율(%)	총합
만 5세	53(39.26)	82(60.74)	135(100)
만 6세	11(8.15)	124(91.85)	135(100)
만 7세	3(2.22)	132(97.78)	135(100)

<표 11> 나이별 음악의 일정 박에 맞춘 걷기의 성취율

② 나이별 음악의 일정 박에 맞춘 달리기의 성취율

음악의 일정 박에 맞추어 달리는 동작은 만 5세는 36.30%, 6세는 46.67%, 7세는 60.74%를 수행하였다. 카이 제곱의 값은 43.976이고 확률 값은

0.000으로, 유의도 .001 레벨에서 나이에 따라 중요한 차이를 보였다 (P<.001). 이러한 결과는 나이에 따라 달리는 동작에 차이가 있음을 증명한다.

	값	유의확률
	43.976	0.000

P<.001

연령	동작을 수행하지 못한	동작을 수행한	총합
	학생 수/백분율(%)	학생 수/백분율(%)	
만 5세	86(63.70)	49(36.30)	135(100)
만 6세	72(53.33)	63(46.67)	135(100)
만 7세	53(39.26)	72(60.74)	135(100)

<표 12> 나이별 음악의 일정 박에 맞춘 달리기의 성취율

③ 나이별 음악의 일정 박에 맞춘 제자리높이뛰기의 성취율

음악의 일정 박에 맞추어 제자리에서 높이 뛰는 동작은 만 5세는 28.89%, 6세는 58.52%, 7세는 67.41%를 수행하였다. 카이 제곱의 값은 16.285이고 확률 값은 0.000으로, 유의도 .001 레벨에서 나이에 따라 중요한 차이를 보였다(P<.001). 이러한 결과는 나이에 따라 제자리에서 높이 뛰는 동작에 차이가 있음을 증명한다. 6, 7세는 서로 간에 차이를 보이지만, 5세와 6세 사이에는 6, 7세에 비해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음악에 맞추어 걷는 능력은 걷기 동작만큼은 아니지만, 5세에서 6세 사이에 크게 발달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값	유의확률
	16.285	0.000

P < .001

연령	동작을 수행하지 못한 학생 수/백분율(%)	동작을 수행한 학생 수/백분율(%)	총합
만 5세	96(71.11)	39(28.89)	135(100)
만 6세	56(41.48)	79(58.52)	135(100)
만 7세	44(32.59)	91(67.41)	135(100)

<표 13> 나이별 음악의 일정 밖에 맞춘 제자리높이뛰기의 성취율

④ 나이별 음악의 일정 밖에 맞춘 앵금질의 성취율

음악의 일정 밖에 맞추어 앵금질하는 동작은 만 5세는 11.85%, 6세는 25.19%, 7세는 45.19%를 수행하였다. 카이 제곱의 값은 38.199이고 확률 값은 0.000으로, 유의도 .001 레벨에서 나이에 따라 중요한 차이를 보였다 (P<.001). 이러한 결과는 나이에 따라 앵금질 동작이 차이가 있음을 증명한다. <표14>를 보면 나이에 따라 앵금질 동작이 차이가 있지만, 다른 동작에 비해 모든 연령에 있어 수행하는 정도가 낮은 편이다. 이것은 앵금질은 다른 동작에 비해 어려운 동작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값	유의확률
	38.199	0.000

P<.001

연령	동작을 수행하지 못한 학생 수/백분율(%)	동작을 수행한 학생 수/백분율(%)	총합
만 5세	119(88.15)	16(11.85)	135(100)
만 6세	101(74.81)	34(25.19)	135(100)
만 7세	74(54.81)	61(45.19)	135(100)

<표 14> 나이별 음악의 일정 밖에 맞춘 앵금질의 성취율

⑤ 나이별 음악의 일정 박에 맞춘 스키핑의 성취율

음악의 일정 박에 맞추어 스키핑하는 동작은 만 5세는 2.96%, 6세는 16.30%, 7세는 3.70%를 수행하였다. 카이 제곱의 값은 21.448이고 확률 값은 0.000으로, 유의도 .001 레벨에서 나이에 따라 중요한 차이를 보였다 ($P < .001$). 이러한 결과는 나이에 따라 스키핑 동작이 차이가 있음을 증명한다. 실험결과 스키핑의 경우 7세는 6세보다 음악에는 잘 맞추었으나 스키핑을 할 수 있는 아동들은 6세보다 적었다. <표15>를 보면 5, 6세간에는 차이를 확실히 보이고 있으나, 7세가 6세보다 수행한 결과가 낮았다. 이러한 이유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측정기관과 나이별로 측정 환경이 조금씩 차이(협소한 공간, 바닥의 재질이 나무인 경우 음악이 잘 들리지 않을 변수)가 있었음을 배제할 수 없다.

	값	유의확률
	21.448	0.000
$P < .001$		

연령	동작을 수행하지 못한 학생 수/백분율(%)	동작을 수행한 학생 수/백분율(%)	총합
만 5세	131(97.04)	4(2.96)	135(100)
만 6세	113(83.70)	22(16.30)	135(100)
만 7세	130(96.30)	5(3.70)	135(100)

<표 15> 나이별 음악의 일정 박에 맞춘 스키핑의 성취율

2) 나이별 음악의 일정 박에 맞춘 비이동 동작의 성취율

① 나이별 음악의 일정 박에 맞춘 무릎치기의 성취율

음악의 일정 박에 맞추어 무릎을 치는 동작은 만 5세는 51.85%, 6세는 66.67%, 7세는 70.37%를 수행하였다. 카이 제곱의 값은 11.117이고 확률 값은 0.003으로, 유의도 .05 레벨에서 나이에 따라 중요한 차이를 보였다 ($P < .05$). 이러한 결과는 나이에 따라 무릎을 치는 동작이 차이가 있음을 증명한다. 6, 7세는 서로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5세와 6세 사이에는 6, 7세에 비해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음악에 맞추어 무릎을 치는 능력은 걷기와 마찬가지로 5세에서 6세 사이에 급격히 발달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값	유의확률
	11.117	0.003

$P < .05$

연령	동작을 수행하지 못한 학생 수/백분율(%)	동작을 수행한 학생 수/백분율(%)	총합
만 5세	65(48.15)	70(51.85)	135(100)
만 6세	45(33.33)	90(66.67)	135(100)
만 7세	40(29.63)	95(70.37)	135(100)

<표 16> 나이별 음악의 일정 박에 맞춘 무릎치기의 성취율

② 나이별 음악의 일정 박에 맞춘 손뼉치기의 성취율

음악의 일정 박에 맞추어 손뼉치는 동작은 만 5세는 56.30%, 6세는 56.30%, 7세는 60.74%를 수행하였다. 카이 제곱의 값은 0.728이고 확률 값은 0.694로, 통계적으로는 차이가 없었다.

		값	유의확률
χ^2		0.728	0.694
연령	동작을 수행하지 못한 학생 수/백분율(%)	동작을 수행한 학생 수/백분율(%)	총합
만 5세	59(43.70)	76(56.30)	135(100)
만 6세	59(43.70)	76(56.30)	135(100)
만 7세	53(39.26)	82(60.74)	135(100)

<표 17> 나이별 음악의 일정 박에 맞춘 손뼉치기의 성취율

③ 나이별 음악의 일정 박에 맞춘 어깨치기의 성취율

음악의 일정 박에 맞추어 어깨치는 동작은 만 5세는 46.67%, 6세는 71.11%, 7세는 75.56%를 수행하였다. 카이 제곱의 값은 28.512이고 확률 값은 0.000으로, 유의도 .001 레벨에서 나이에 따라 중요한 차이를 보였다 ($P < .001$). 이러한 결과는 나이에 따라 어깨치는 동작에 차이가 있음을 증명한다. 6, 7세는 서로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5세와 6세 사이에는 6, 7세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음악에 맞추어 어깨를 치는 능력은 5세에서 6세 사이에 급격히 발달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값	유의확률
χ^2		28.512	0.000

$P < .001$

연령	동작을 수행하지 못한 학생 수/백분율(%)	동작을 수행한 학생 수/백분율(%)	총합
만 5세	72(53.33)	63(46.67)	135(100)
만 6세	39(28.89)	96(71.11)	135(100)
만 7세	33(24.44)	102(75.56)	135(100)

<표 18> 나이별 음악의 일정 박에 맞춘 어깨치기의 성취율

④ 나이별 음악의 일정 박에 따른 어깨치기-손뽀치기의 성취율

음악의 일정 박에 맞추어 어깨치기와 손뽀치기를 번갈아 반복하는 동작은 만 5세는 15.56%, 6세는 61.48%, 7세는 70.37%를 수행하였다. 카이 제곱의 값은 93.299이고 확률 값은 0.000으로, 유의도 .001 레벨에서 나이에 따라 중요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이러한 결과는 나이에 따라 어깨치기와 손뽀치기를 번갈아 반복하는 동작에 차이가 있음을 증명한다. 6, 7세는 서로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5세와 6세 사이에는 6, 7세에 비해 급격하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러한 이유는 앞서서의 동작과는 달리 두개의 동작이 결합된 형태이기 때문에 5세가 6, 7세에 비해 음악에 맞추어 재빨리 다른 동작으로 바꾸어야 하는 것을 인지하는데 무리가 따름을 추정할 수 있다.

	값	유의확률
χ^2	93.299	0.000
$P < .001$		

연령	동작을 수행하지 못한 학생 수/백분율(%)	동작을 수행한 학생 수/백분율(%)	총합
만 5세	114(84.44)	21(15.56)	135(100)
만 6세	52(38.52)	83(61.48)	135(100)
만 7세	40(29.63)	95(70.37)	135(100)

<표 19> 나이별 음악의 일정 박에 맞춘 어깨치기-손뽀치기의 성취율

⑤ 나이별 음악의 일정 박에 맞춘 어깨치기-손뽀치기-무릎치기-손뽀치기의 성취율

음악의 일정 박에 맞추어 어깨치기-손뽀치기-무릎치기-손뽀치기를 번갈아

반복하는 동작은 만 5세는 3.7%, 6세는 28.89%, 7세는 34.07%를 수행하였다. 카이 제곱의 값은 41.228이고 확률 값은 0.000으로, 유의도 .001 레벨에서 나이에 따라 중요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이러한 결과는 나이에 따라 어깨치기-손뼉치기-무릎치기-손뼉치기를 번갈아 반복하는 동작에 차이가 있음을 증명한다. <표20>을 보면 나이에 따라 동작이 차이가 있지만, 다른 동작에 비해 나이에 따라 수행하는 정도가 현저히 낮은 편이다. 이것은 두개 이상의 동작이 결합된 형태이면서 모든 아동이 음악에 맞추어 재빨리 다른 동작으로 바꾸어야 하는 것을 인지하는데 무리가 따름을 추정할 수 있다.

	값	유의확률
	41.228	0.000
$P < .001$		

연령	동작을 수행하지 못한 학생 수/백분율(%)	동작을 수행한 학생 수/백분율(%)	총합
만 5세	130(96.30)	5(3.70)	135(100)
만 6세	96(71.11)	39(28.89)	135(100)
만 7세	89(65.93)	46(34.07)	135(100)

<표 20> 나이별 음악의 일정 밖에 맞춘

어깨치기-손뼉치기-무릎치기-손뼉치기의 성취율

VI. 요약 · 결론 및 제언

1. 요약

본 연구는 아동들의 나이에 따라 음악의 일정 박에 맞추어 여러 가지 동작능력을 조사하여 아동기에 적절한 동작을 이용한 음악수업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는 실험문항을 이동 동작문항과 비이동 동작문항으로 나누어, 나이에 따라 음악의 일정 박에 맞추어 얼마나 동작을 수행하는지 알아보고 서로 간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시하였다.

- 1) 음악의 일정 박에 맞춘 각 동작의 난이도는 어떠한가?
- 2) 음악의 일정 박에 맞추어 이동 동작인 걷기, 달리기, 제자리높이뛰기, 앵금질, 스키핑을 얼마나 수행하며, 나이별로 차이가 있는가?
- 3) 음악의 일정 박에 맞추어 비이동 동작인 무릎치기, 손뼉치기, 어깨치기, 어깨치기-손뼉치기, 어깨치기-손뼉치기-무릎치기-손뼉치기를 얼마나 수행하며, 나이별로 차이가 있는가?

위와 같은 해결을 위하여 아동의 나이를 고려한 음악에 따른 동작활동 측정도구를 제작하였다. 이 제작된 측정도구로 서울과 서울 근교에 위치한 어린이집 및 음악학원 3곳과 초등학교 3곳을 선정하여 나이별로 만 5세(취학전), 6세(초등학교 1학년), 7세(초등학교 2학년) 아동 총 135명의 아동을

연령별로 45명씩 나누어 음악에 따른 동작활동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의 일정 박에 따른 각 동작에 따른 성취율에 있어, 이동 동작의 경우에는 각각 걷기는 83.45%, 달리기는 61.6%, 제자리높이뛰기는 47.9%, 앵금질은 27.41%, 스키핑은 7.65%를 수행하였고, 비이동 동작의 경우에는 각각 무릎치기는 62.96%, 손뼉치기는 57.78%, 어깨치기는 64.44%, 어깨-손뼉치기는 49.13%, 어깨-손뼉-무릎-손뼉치기는 22.22%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음악의 일정 박에 맞추어 이동 동작과 비이동 동작을 합친 전체 동작의 난이도 순서로 나열하면 걷기, 어깨치기, 무릎치기, 달리기, 손뼉치기, 어깨치기-손뼉치기, 제자리높이뛰기, 앵금질, 어깨-손뼉-무릎-손뼉, 스키핑 순으로 걷기 동작이 가장 쉬운 동작이었으며, 스키핑 동작이 가장 어려운 동작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나이별 일정 박에 맞춘 각 이동 동작의 성취율을 보면,

- ① 음악의 일정 박에 맞추어 걷는 동작은 만 5세는 60.74%, 6세는 91.85%, 7세는 97.78%를 수행하였으며, 유의도 .001 레벨에서 나이에 따라 중요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이러한 결과는 나이에 따라 음악의 일정 박에 맞추어 걷기 동작에 차이가 있음을 증명한다.
- ② 음악의 일정 박에 맞추어 달리는 동작은 만 5세는 36.30%, 6세는 46.67%, 7세는 60.74%를 수행하였으며, 유의도 .001 레벨에서 나이에 따라 중요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이러한 결과는 나이에 따라 음악의 일정 박에 맞추어 달리기 동작에 차이가 있음을 증명한다.
- ③ 음악의 일정 박에 맞추어 제자리에서 높이 뛰는 동작은 만 5세는 28.89%, 6세는 58.52%, 7세는 67.41%를 수행하였으며, 유의도 .001 레벨에서 나이

에 따라 중요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이러한 결과는 나이에 따라 음악의 일정 박에 맞추어 제자리높이뛰기 동작에 차이가 있음을 증명한다.

④ 음악의 일정 박에 맞추어 앵금질 하는 동작은 만 5세는 11.85%, 6세는 25.19%, 7세는 45.19%를 수행하였으며, 유의도 .001 레벨에서 나이에 따라 중요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이러한 결과는 나이에 따라 음악의 일정박에 맞추어 앵금질 동작에 차이가 있음을 증명한다.

⑤ 음악의 일정 박에 맞추어 스키핑 하는 동작은 만 5세는 2.96%, 6세는 16.30%, 7세는 3.70%를 수행하였으며, 유의도 .001 레벨에서 나이에 따라 중요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이러한 결과는 나이에 따라 음악의 일정 박에 맞추어 스키핑 동작에 차이가 있음을 증명한다.

셋째, 나이별 일정 박에 맞춘 각 비이동 동작의 성취율을 보면,

① 음악의 일정 박에 맞추어 무릎을 치는 동작은 만 5세는 51.85%, 6세는 66.67%, 7세는 70.37%를 수행하였으며, 유의도 .05 레벨에서 나이에 따라 중요한 차이를 보였다($P < .05$). 이러한 결과는 나이에 따라 음악의 일정 박에 맞추어 무릎을 치는 동작에 차이가 있음을 증명한다.

② 음악의 일정 박에 맞추어 손뼉을 치는 동작은 만 5세는 56.30%, 6세는 56.30%, 7세는 60.74%를 수행하였으며, 통계적으로는 차이가 없었다.

③ 음악의 일정 박에 맞추어 어깨를 치는 동작은 만 5세는 46.67%, 6세는 71.11%, 7세는 75.56%를 수행하였으며, 유의도 .001 레벨에서 나이에 따라 중요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이러한 결과는 나이에 따라 음악의 일정 박에 맞추어 어깨를 치는 동작에 차이가 있음을 증명한다.

④ 음악에 맞추어 어깨치기와 손뼉치기를 번갈아 반복하는 동작은 만 5세는 15.56%, 6세는 61.48%, 7세는 70.37%를 수행하였으며, 유의도 .001 레벨

에서 나이에 따라 중요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이러한 결과는 나이에 따라 음악의 일정 박에 맞추어 어깨치기-손뽕치기를 번갈아 반복하는 동작에 차이가 있음을 증명한다.

- ⑤ 음악에 맞추어 어깨치기-손뽕치기-무릎치기-손뽕치기를 번갈아 반복하는 동작은 만 5세는 3.7%, 6세는 28.89%, 7세는 34.07%를 수행하였으며, 유의도 .001 레벨에서 나이에 따라 중요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이러한 결과는 나이에 따라 음악의 일정 박에 맞추어 어깨치기-손뽕치기-무릎치기-손뽕치기 동작에 차이가 있음을 증명한다.

2. 결론

음악교육에서의 동작활동이 효과적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것을 학교의 수업시간에 적용시키는 것에는 아직 연구가 많이 부족한 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음악수업에서 적용하기 쉬운 동작을 이용한 음악활동을 조사하여 아동들에게 음악을 지도하는 교사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따라 다음 같이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첫째, 손뽕치기를 제외한 모든 동작은 나이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특히 이동 동작의 걷기와 제자리높이뛰기, 비이동 동작의 어깨치기, 어깨치기-손뽕치기 동작은 6, 7세는 서로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5세와 6세 사이에는 6, 7세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보았을 때 이와 같은 동작들은 5세에서 6세 사이에 급격히 발달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

서 이러한 동작들을 음악수업에 적용함에 있어 5세 클래스에서 특별히 많이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이동 동작의 앵금질과 스키핑의 경우 나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실험에 참여했던 모든 연령들이 다른 동작에 비해 수행하는 정도가 낮은 편이었다. 이러한 결과로 보았을 때 이와 같은 동작들은 다른 동작에 비해 어려운 동작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동작을 음악수업에 적용함에 있어 아동들에게 무리하게 요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셋째, 비이동 동작의 어깨치기-손뽀치기-무릎치기-손뽀치기 동작과 같이 네 가지 이상의 동작이 결합된 형태의 동작은 다른 동작에 비해 수행하는 정도가 현저히 낮은 편이었다. 이와 같은 동작은 5세, 6세, 7세의 모든 아동이 음악에 맞추어 재빨리 다른 동작으로 바꾸어야 하는 데는 무리가 따름을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동작을 음악수업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교사의 충분한 동작 설명과 함께 아동이 모방하여 따라할 수 있도록 시범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교사는 아동에게 있어 동작을 이용한 음악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아동에게 의미 있는 동작 음악활동을 계획해 줌으로써 아동이 스스로 동작을 이용한 음악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제언

본 연구를 통해 앞으로 다음과 같은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첫째, 본 연구에 있어 나이별로 45명이라는 인원은 연구의 결론을 내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좀 더 많은 인원과 다양한 환경에서

자라난 아동을 대상으로 좀 더 다양한 음악을 이용한 동작으로 조사하는 연구가 있어야 하겠다.

둘째, 짧은 기간 안에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부족함을 많이 느꼈다. 추후에는 오랜 기간 지속하여 결과를 구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측정도구 제작 및 평가기준을 제작하는 연구에 있어서는 연구자 한명이 모두 제작하는 것 보다 여러 명의 작업자가 함께 기획하고, 이를 객관적인 시각으로 검증하여 중립적인 자세로 결과를 구하는 연구가 필요하겠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교사들은 음악수업에 있어서 동작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동작활동을 음악수업 현장에 적용하는 것은 더욱 부족하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교사의 재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런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국내 단행본

- 김영희 · 김영. (1991). 유아를 위한 음률교육. 서울: 창지사.
- 김은심. (2004). 출생부터 8세까지 유아를 위한 동작교육. 서울 : 정민사.
- 박혜정. (1994). 신체표현. 서울 : 교문사.
- 배인자 · 한규령. (1996). 유아를 위한 동작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 양서원.
- 오연주· 이경실· 김현지· 박경애. (2000). 유아 동작 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 창지사.
- 이기숙. (1992). 유아교육과정. 서울 : 교문사.
- 이 영 · 전인옥 · 김온기. (2004). 유아를 위한 창의적 동작교육.
서울 : 교문사.
- 이춘희. (1999). 창의적 유아동작교육. 서울 : 동문사.
- 이흥수. (1990).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서울 : 세광음악출판사
- 子安美知子. (1993). 슈타이너의 음악교육. 최시원역. 서울 : 세광음악출판사.
- 한글학회. (1995). 한글 우리말 큰사전. 한글과 컴퓨터.

2. 정기 간행물

- 음악교육편집부. (1987. 3), “몸짓의 문법을 포함한 세 가지 몸짓”. 음악교육.
- 현경실. (2003). “신체표현을 위한 음악놀이 개발과 수업에의 적용방안”. 음악

과 민족 제26호.

3. 번역서

Joy Yelin(著). (2001) 『달크로즈 유리드믹스 클래스를 위한 즉흥 연주곡
집』 서울 : 태림출판사.

4. 국내 학위 논문

권미란. (2000). 음악감상 활동에서 신체표현이 창의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김미숙. (1985). 창의적 지도법이 유아의 신체표현 능력 및 창의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김신자. (1989). 창의적 표현활동과 유아의 성, 연령, 가정환경과의 관계. 석
사 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김혜옥. (1984). 유아의 동작활동 효과에 관한 기초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
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김혜정. (1988). 창의적 동작교육에 대한 유치원 교사의 태도분석.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이만수. (1991). 교사의 질문유형이 유아의 창의적 신체표현 활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전인옥. (1995). 유아의 성·연령집단과 교사의 질문유형이 유아의 창의성과
동작표현력에 미치는 영향. 논문집, 한국방송통신대학교.

5. 외국 서적

Laban, R. 『*The Mastery of Movement*』, 3rd edition. Revised by
Lisa Ullman. Boston Plays Inc. 1971.

Margolin,E. 『*Young children*』, NewYork : Macmillan Pudlishing,
Company, Inc. 1976.

Pica, R. 『*Experiences in monvment-with Music, Activities and
Theory*』,Albany,N,Y.:Delmar Publishers Inc. 1995.

ABSTRACT

A Study on the Realities of Motion Ability Depending on Music - Centering on 5, 6, 7 Years Old -

Ham, Ju Hyun

Department of Music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Everybody recognizes that movements are effective for music education. However, in our country's reality, it is still insufficient for a study on applying the movements to the instructional time of a school.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help in performing music instruction using movements suitable for childhood, by surveying variously motion abilities in line with the steady beats of music depending on age of children. Accordingly, among movements that are used much for music education, this study examined how much it is performed the movable movements such as walking, running, sargent jump, hopping, and skipping, and the non-movable movements such as snapping lap, clapping hands, hitting shoulder, slapping shoulder-hands, and hitting

shoulder-hands-lap-hands, in keeping with the steady beats of music, and examined whether there is difference depending on age.

Aiming to solve the subject of this study, it manufactured a tool of measuring movements activity depending on music that considered children's age. Using this measurement tool manufactured, it measured the movements activity depending on music, by dividing totally 135 children in their fully 5 years old (before entering school), 6 years old (1st grader of elementary school), and 7 years (2nd grader of elementary school) by age into 45 children each by age, after choosing 3 places of children's home and music institute and 3 elementary schools where are located in Seoul and around Seoul.

As this is a method of evaluating a small group, it was measured after shooting the whole process of movements activity with VTR. In terms of the conducted movements, 2 other evaluators in addition to a researcher together marked whether or not performance of movements, by the evaluation standard that was directly designed by this researcher. As for the scores that were marked by 3 evaluators, the reliability of evaluators was measured by using Cronbach's Alpha, and aiming to examine whether the age had significant influence on movements, it carried out Chi-square.

The results obtained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mong 10 movements measured, it could be seen that the walking motion was the easiest action and the skipping movement was the most difficult action.

Second, all movements except clapping hands had difference depending on age. In particular, as for the movable movements such as walking and sargent jump and the non-movable motions such as hitting shoulder, and slapping shoulder-clapping hands, it didn't show mutually big difference between 6 years old and 7 years old, but was showing the big difference between 5 years old and 6 years old, compared to 6 years old and 7 years old. Given having seen this result, it can be presumed that these motions are rapidly developed between 5 years old and 6 years old.

Third, in case of movable movements such as hopping and skipping, there was difference depending on age, but all ages that participated in experiment tended to have lowly performance level compared to other movements. Given having seen this result, it can be presumed that these movements are difficult actions compared to other motions.

Fourth, as for the movements with the form of being combined with movements of more than 4 kinds of actions like the non-movable movements such as hitting shoulder-clapping hands-slapping lap-clapping hands, it tended to have significantly low performance level compared to other motions. It can be presumed that the motion like this is unreasonable for all children in their 5 years old, 6 years old and 7 years to need to change into other movements quickly in keeping with music.

부 록

<부록 1> 실험대상 교육기관에 제출한 논문개요

<부록 2> 실험평가지(O, X)

<부록 3> 본 논문의 실험에 사용된 음악

<부록 4> 본 논문의 실험에 참여한 아동들

음악에 따른 동작능력에 관한 실태조사

- 만 5, 6, 7세를 중심으로 -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 저의 논문연구의 실험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과에 재학 중인 함 주 현입니다. 현재 나이에 따른 동작활동 능력에 관한 실험 조사를 연구하는 논문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본 연구는 만 5, 6, 7세의 아동들에게 음악을 통한 다양한 동작을 제시하였을 경우, 각각의 연령에 해당되는 그룹이 얼마나 박자에 맞추어 동작을 수행하는지, 또한 각 나이에 따라 실제적으로 얼마나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시하고자 하는 검사는 본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며, 검사결과는 연구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결코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검사에 응해 주시기 위해 시간을 내어 주신 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음악교육에서 동작활동이 효과적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아직까지 동작활동을 학교의 수업시간에 적용시키는 것에 대한 연구는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아동들의 나이에 따라 음

악의 일정 박에 맞추어 하는 여러 가지 동작 능력을 조사하여 아동기에 적절한 동작을 이용한 음악수업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입니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악의 일정 박에 맞춘 각 동작의 난이도는 어떠한가?
2. 음악의 일정 박에 맞추어 이동 동작인 걷기, 달리기, 제자리높이뛰기, 앵금질, 스키핑을 얼마나 수행하며, 나이별로 차이가 있는가?
3. 음악의 일정 박에 맞추어 비이동 동작인 무릎치기, 손뼉치기, 어깨치기, 어깨치기-손뼉치기, 어깨치기-손뼉치기-무릎치기-손뼉치기를 얼마나 수행하며, 나이별로 차이가 있는가?

<부록 2> 실험 평가지(0, X)

번호	교육기관	성별	나이	걸기	달리기	높이뛰기	깡깡이	스키픽	무릎	손뼉	어깨	어깨손뼉	어깨손뼉 무릎손뼉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부록 3> 본 논문의 실험에 사용된 음악

이동 동작

문항 1 걷기(45초)

arr. Joy Yelin

The image displays a musical score for a piano accompaniment. It consists of two systems of music, each with a grand staff (treble and bass clefs). The first system contains 7 measures, and the second system contains 8 measures, starting with a measure number '8' above the first staff. The music is written in a common time signature (C) and features a steady, rhythmic accompaniment with chords and single notes in both hands.

문항 2 달리기(33초)

arr. Joy Yelin

The first system of musical notation consists of two staves. The upper staff is in treble clef and the lower staff is in bass clef. The music is in 2/4 time. The upper staff begins with a quarter rest, followed by a series of eighth notes: G4, A4, B4, C5, B4, A4, G4. The lower staff begins with a quarter rest, followed by eighth notes: F#4, G4, A4, B4, A4, G4, F#4. The system concludes with a double bar line.

The second system of musical notation consists of two staves. The upper staff begins with a quarter rest, followed by eighth notes: G4, A4, B4, C5, B4, A4, G4. The lower staff begins with a quarter rest, followed by eighth notes: F#4, G4, A4, B4, A4, G4, F#4. The system concludes with a double bar line.

The third system of musical notation consists of two staves. The upper staff begins with a quarter rest, followed by eighth notes: G4, A4, B4, C5, B4, A4, G4. The lower staff begins with a quarter rest, followed by eighth notes: F#4, G4, A4, B4, A4, G4, F#4. The system concludes with a double bar line.

문항 3, 4 스위스 민속선율

제자리높이뛰기(29초), 앵금질(31초)

The first system of the musical score is written in 3/4 time. The treble clef staff contains a melody of eighth and sixteenth notes, while the bass clef staff provides a harmonic accompaniment with chords and single notes.

The second system of the musical score continues the melody and accompaniment from the first system. It begins with a measure number '10' above the treble clef staff. The piece concludes with a double bar line at the end of the system.

문항 5 스키핑(46초)

arr. Joy Yelim

The musical score is written in 6/8 time and consists of three systems of two staves each. The first system (measures 1-5) features a treble staff with eighth-note chords and a bass staff with a simple eighth-note accompaniment. The second system (measures 6-10) has a treble staff with eighth-note chords and a bass staff with a more active eighth-note accompaniment. The third system (measures 11-15) returns to a treble staff with eighth-note chords and a bass staff with a simple eighth-note accompaniment, ending with a double bar line.

비이동 동작

문항 6~10 비이동 동작문항(20초)

Offenbach

The image shows a musical score for a piece by Offenbach, titled '비이동 동작' (Non-moving exercise). The score is written for piano and consists of three systems of music, each with a treble and bass clef staff. The key signature is one sharp (F#) and the time signature is 2/4. The first system contains measures 6-7, the second system contains measures 8-13, and the third system contains measures 14-19. The music features a steady eighth-note melody in the right hand and a rhythmic accompaniment of chords in the left hand.

<부록 4> 본 논문의 실험에 참여한 아동들



음악의 일정 밖에 맞추어 걷기를 수행 중인 아동들



음악의 일정 밖에 맞추어 달리기를 수행 중인 아동들



음악의 일정 박에 맞추어 제자리높이뛰기를
수행 중인 아동들



음악의 일정 박에 맞추어 앵금질을 수행 중인 아동들



음악의 일정 박에 맞추어 스키핑을 수행 중인 아동들



음악의 일정 박에 맞추어 무릎치기를 수행 중인 아동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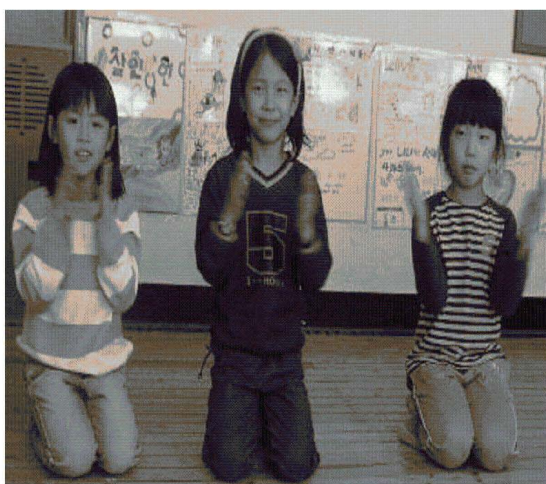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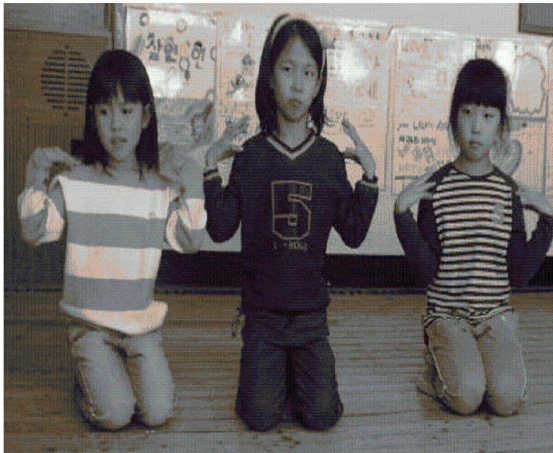
음악의 일정 밖에 맞추어 손뼉치기를 수행 중인 아동들



음악의 일정 밖에 맞추어 어깨치기를 수행 중인 아동들



음악의 일정 밖에 맞추어 어깨치기 - 손뼉치기를 수행 중인 아동들



음악의 일정 밖에 맞추어 어깨치기-손뼉치기-무릎치기-손뼉치기를 수행중인 아동들